

코스피(9월)	2375.81 (-26.10P)	코스닥	869.47 (-8.82P)
환율(달러당 원화)	1189.10 (+2.70원)	금리(국고채 3년물)	0.915% (-0.034%P)

〈금감원장〉

## 윤석헌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총대 땀 은행 없고 배상 장기표류하자 금감원 직접 나서  
은행협의회 내일 두번째 회동서 추가 분쟁 자율조정 논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의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키코 피해 기업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6월 출범한 은행협의회의 활동이 지지부진하자,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미완의 숙제'로 남은 키코 사태를 해결하려는 윤 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11일 키코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룬 은행협의회 회의가 금감원에서 열린다. 7월 초 첫 킷오프 회의를 한 이후 이렇다 할 만한 배상 논의 없이 '유명무실화' 지적이 일자, 보다 못한 금감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이 자리에선 자율배상 논의와 함께 지난 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상생기금 조성에 대한 토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협의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한국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9곳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살펴볼 피해 기업은 140여 곳이다.

금감원은 당초 은행 한 곳이 간사를 맡아 은행협의체를 운영토록 기획했다. 그러나

참여 은행들은 간사 은행 선출을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과 키코 공대위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체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들을 대변해서 한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의 뜻을 밝혀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금용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 정해 둔 기한인 9월 말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서둘러 논의할 것"이라며 "금감원 또한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하에 소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협의체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입장을 선화한 은행이 꽤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입장에서 키코는 아픈 손가락이다. 그간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

### 키코 일지

2007년~2008년 3월	800~900개 기업이 14개 은행과 키코 계약 체결
2008년 3월	2008년 3월 이후 환율 급등으로 손실
2012년 5월	대검찰청, 키코 판매 은행의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
201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불공정성 사기성 관련은 원고 패소
2018년 7월	키코 피해 기업 47사, 분쟁조정 신청
2019년 12월	분조위, 4개 기업에 6개 은행의 15~41% 손해배상 권고
2020년 6월	우리은행 제외한 5개 은행, 분조위 권고 거부
7월	은행협의회 킷오프 회의

금융사고, 라임 분쟁조정 등 소비자보호 최선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키코만큼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성용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날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미완의 숙제를 남겨 미안하다"며 "입기 내 마무리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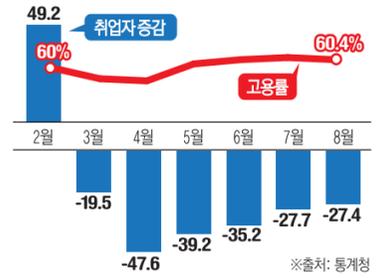
월 중순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전에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다.

한편 금감원과 키코 피해 기업들은 10월 국정감사 때 금융소비자 피해로 키코 사태가 다시 조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은 키코 피해를 키운 손실이전거래는 애초에 불건전 거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유관해석에서 손실이전거래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시에 규정대로 신고했다면 막대한 손실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적 책임도 모른 채하니, 국감 증인으로 최고경영자(CEO)를 출석시켜 도의적 책임을 직접 묻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국회가 외부인 출입을 금하고 있어 민간 금융회사 증인 출석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지연 기자 sjy@

### 취업자증감추이

(단위: 명, 전년동월대비)



## 구직단념 14만명 쉬었음 29만명 늘어 경제활동 포기자 최대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동월보다 53만4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늘어난 비경제활동인구 중 29만명은 경제활동·학업·가사 등 모든 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인구가 됐다.

통계청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15세 이상 인구가 전년 동월보다 26만7000명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인구는 26만7000명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3만4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월과 비교하면 경제활동인구는 감소 폭이 3만1000명 확대됐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 폭이 3만2000명 확대됐다. 활동상태별로 '쉬었음' 인구가 29만 명 늘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절반을 넘는 숫자다. 연령별로 청년층(15~29세)에서 3만1000명 증가했다. 특히 구직단념자는 13만9000명 늘며 증가 폭이 전월(5만5000명)보다 8만4000명 확대됐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주된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업자 감소다. 확산 초기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줄었다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에까지 부정적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 일시휴직자 증가 폭이 84만6000명으로 10만6000명 축소됐으나, 직장 복귀보단 실업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업자가 대거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단념자 등으로 이동하면서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보다 0.1%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 실업자는 86만4000명으로 6000명 늘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좌석 뜯어낸 여객기

대한항공이 8일 화물 수송을 위해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한 '보잉777-300ER' 기종을 처음 화물 노선에 투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외국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개조해 화물을 수송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객실 좌석을 뜯어내 옮기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제공 대한항공

### 키코 (KIKO-Knock-In Knock-Out)

환율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만기에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 금융상품. 예컨대 만기 시 환율이 달러당 1000~1200원이면 1100원에 달러를 팔 권리(옵션)를 부여하는 식이다. 그러나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가입자가 크게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팔아 일부 기업이 큰 손실을 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술집·한강 못 가니...파티룸 몰린 2030

"클럽에서처럼 하루 재밌게 놀면 됩니다. 파티룸과 주류까지 포함해 10만원 정도 내면 돼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클럽 등 유흥업소는 물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출입이 제한되자 20~30대 젊은층들이 호텔(파티룸)로 몰리고 있다. 서울시가 밀집지인 한강공원을 통제하자 파티룸 선호도는 더 커졌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이른바 '파티룸 조각 맨바'를 모집하는 글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인터넷상에서 '조각'은 값비싼 클럽 테이블 비용을 모르는 사람

코로나 확산에도 호텔·모텔 부쩍  
오픈채팅방 '조각 모집' 부쩍 늘어  
서울시 주류판매 단속해 유입 차단

끼리 비용을 나눈다는 의미로 쓰인다.

9일 '파티 조각 모집방'에 직접 들어가 보니 방장인 A 씨가 비용 안내와 함께 "클럽에서 노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하루 재밌게 노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시간가량 참여자를 모집한 뒤 퇴장했다.

파티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 유명 숙박 플랫폼 관계자는 "7월 26일~8월 15일에 비해 8월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파티룸 검색량이 2

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출입 통제가 많아져 젊은층이 유흥을 즐기기에 대체지로 파티룸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호텔이나 모텔 파티룸은 일반 객실보다 숙박비가 비싸다. 서울 주요 호텔 등의 파티룸은 하룻밤에 최소 15만 원부터 60만 원을 훌쩍 넘는 곳도 있다. 1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 보통 지인들과 함께 비용을 분담해 생일 등 특별한 날을 함께 보낼 때 찾는 공간이다.

이달 말까지 예약이 마감된 파티룸도 많다. 파티 시설이 좋은 모텔은 예약이 빠르고 가격대가 높은 호텔 상당수도 예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8면에 계속 홍인석 기자 mystic@

## '착한 임대인' 세제혜택 연장 추진

당정,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다들 임대주장과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 원(기간은 미정)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기사 4·6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관련 "민주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다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 '착한 임대료' 연장 방안도 논의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연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0일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통신비 지원에 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일반 영업장이 신고하면 보상금액 산정 과정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 사실 확인만으로 바로 손실 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좌석 뜯고 화물·KTX보다 싼 티켓... 항공사 '생존 몸부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 여객기, 화물 전용기로 개조 화물사업 호조 2분기 '깜짝 실적' LCC 추석 연휴 맞아 항공권 특가 에어부산, 최대 93% 할인 판매 김포~부산 2만~3만원대 티켓도



대한항공이 8월 화물 수송을 위해 개조 작업을 완료한 보잉777-300ER 기종을 처음으로 화물 노선에 투입하며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진제공 대한항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빠진 항공사가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객기를 화물기로 바꾸고 추석 연휴에는 KTX보다 싼 항공권을 내놓으며 수익 만회를 꾀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8일 국토부 승인을 거쳐 화물 전용기로 바꾼 여객기(보잉777-300ER 기종)를 화물 노선에 투입했다. 개조된 비행기는 항공기 상단의 객실 좌석(프레스티지 42석·이코노미 227석)을 제거해 총 32.8톤(t)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이전보다 화물 적재량이 약 49% 늘어났다.

항공기(KE9037편)는 현지시간으로 8일 밤 10시 미국 콜럼버스 리켄베커 공항

에 도착한다. 콜럼버스는 현지 의류기업과 유통기업의 물류센터가 집중돼 있는 화물 거점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동남아시아 화물 노선망 등과 연계해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등의 화물 수요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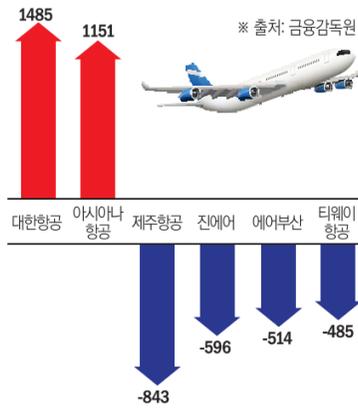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도 최근 여객기 2대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화물기 개조와 관련해 현재 관계기관 승인이 진행되

고 있다"고 밝혔다.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대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진에어 역시 여객기 개조에 나선다. 진에어는 대형 항공기인 B777-200ER 여객기 1대를 추석 연휴 이후 기내 좌석을 철거하고 개조해 화물 전용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B777-200ER 기종을 화물 전용기로 전환하면 탑재 규모가 10톤가량 늘어나 25톤까지 화물을 실을 수 있다.

## 국내 항공사 2분기 영업이익

(단위: 억 원, 별도 기준)



항공사들은 적극적인 화물 영업을 통해 호실적을 노린다. 대한항공(1485억 원)과 아시아나항공(1151억 원)은 이미 올해 2분기 화물 사업 호조에 힘입어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실적)를 달성했다.

대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LCC들은 명절을 맞아 항공권 할인에 나섰다. 여객성의 경우 KTX보다도 싼 항공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일반적으로 연휴 기간은 특별수송 기간으

로 꼽히는 성수기라 요금이 비싼 편이다.

일부 LCC들은 추석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4일) 김포~부산 역귀성 항공편을 편도 2만~3만 원대에 내놓았다.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까지 향하는 KTX의 편도 요금은 5만 원 후반대이다. KTX 편도 가격이 면 비행기로 서울과 부산을 오갈 수 있다.

전날 에어부산은 추석 연휴 기간 역귀성 및 역귀경하는 고객을 위해 김포~부산, 김포~울산 노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최대 93%까지 할인된 항공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LCC 관계자는 "연휴 초반에 귀성해 후반에 귀경하는 정패턴은 할인이 거의 없다"면서도 "연휴 기간 하루 이틀 전에는 귀성길에도 2만~3만 원대로 할인된 항공편을 예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기로 등 고정비 지출이 많은 항공사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운임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항공권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 수요가 예년과 같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항공사들의 추석 연휴 기간 국내선 예약률은 50~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이주혜 기자 winjh@

## 현장에서

과로사 7명, 기타 산재 사망 2명.

올해에만 택배 산업 현장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비명 끝에 사망한 노동자들의 숫자입니다.

2월부터 이달 8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매달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택배 현장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택배 물량은 30% 이상 늘었고, 추석을 앞두고 9월 물량은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상반기 통계로만 예년 한해 평균의 3~5배 정도의 택배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이낙연 대표님, 택배 노동자 안전은요?

올해 7명 과로사... 추석 택배 물량 40%↑ '분류인력 증원' 시급

이런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코로나19 우려에 이동을 자제하는 대신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직접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원회도 추석 때 주고받는 선물의 상한액을 잠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더 많이,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월 50만 원이던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높이고, 할인율도 1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 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소비 위축에 시름 하던 유통 업계와 태풍 피해까지 입은 농수산 업계가 미소 지을 일입니다.

다만, 일일 근로시간 13시간이란 OECDE 평균 2배의 약조건 속에서 택배 노동자들은 이를 고스란히 떠맡아야 합니다. 심지어 지난달 16일 '택배 없는 날'이란 28년 만 첫 휴가에도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숨질 정도로 이들은 사각지대에 내몰렸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분류작업 인력 투입이 꼽힙니다. 택배 노동자 하루 노동시간의 절반이 분류작업에 소요됩니다. 택배 노동자 임금은 배달 건수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구간 배송 사전작업인 분류작업은 무임금 노동으로 이뤄진 현실입니다. 대비책도 없이 추석 선물 물량만 많아진다면, 대가 없는 노동을 목숨과 맞바꾸라 부채질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인 우체국 택배부터 분류작업 인력을 시급히 투입하고, 민간택배사에 분류작업 인력투입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입장을 들여다봐 주세요. 이른바 '택배법'이라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법 또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이걸을 쫓아가지 못한 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국회의 시계로는 당장 추석 대목 물량 폭탄이 쏟아지는 현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의 '극한알바'로 꼽히는 이른바 '까대기', 택배 상하차 단기 일자리에도 한 푼이 아쉬운 청년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이낙연 대표님은 최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와 나, '우분투' (ubuntu)의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추석이 있으면 대목이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생산, 유통자가 있습니다. 보내는 이가 있으면 받는 이가 있지요. 여기에 하나 더, 너와 나 사이에 '끼' 사람들을 봐주세요.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국민이 지킨 건강보험! 이제는 국민을 지킵니다.



'턱'스크 NO!!



마스크 YES!!



'입'스크 NO!!

코와 입을 모두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 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 반기 든 은행에 ‘썰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완전판매’를 자행한 금융회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올해 ‘원장 교체설’과 금융사들과의 잦은 마찰로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을 거두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슈퍼 여당’과 함께 남은 임기 1년 동안 금융사와 ‘소비자보호’ 명목으로 전쟁도 불사할 기세다.

## 윤 원장 ‘불완전판매’ 전방위 압박

“신뢰 추락 경영 토대 위협” 비판 사상 첫 라임 100% 배상 이끌어

## ‘슈퍼 여당’ 업은 금감원

與,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분쟁 조정안 편면적 구속력 부여

위를 높였다. 결국 판매사들은 금감원 전액배상 결정을 받아들였다.

◇ 키코 배상 반기, 편면적 구속력 카드 = 진보 학자 출신인 윤 원장과 금융사는 자주 충돌했다. 라임사태 이전에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안, 키코 배상안 등 굵직한 금감원 결정에 잇따라 금융사들이 반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올해 초 DLF 출시·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통제 절차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합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문책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확정 시 금융권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다. 두 사람은 이 결정에 불복, 사건을 사법부로 끌고 갔다. 피감기관인 은행이 금감원에 항명한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등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합 부회장 역시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윤 원장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시계를 몇 달 돌려도 내 의사결정(DLF 징계)은 똑같은 것”이라며 “한국 금융이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키코 배상 문제는 윤 원장에게 아픈 손가락이다. 윤 원장은 2017년 금융행정혁신 위원장 시절부터 키코 배상을 주장해 왔다. 이후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분쟁조정 2국 내에 ‘키코 분쟁조정전담팀’을 구성해 키코 배상 문제에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사가 배상을 거부하면서 피해 배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자율배상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단 한

차례 논의만 있었을 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분조위 결정에 금융사들이 불복하자 윤 원장이 칼을 들었다. 윤 원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조정 당사자 중 한 쪽이 무조건 결과에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분조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특히 고객이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사를 믿고 거래하는 만큼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 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

정을 받아들였을 때 금융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안이 확정된다. 현재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은 권고 사항이다. 당사자들이 분조위의 조정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금융사들이 제재안을 거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이 내용은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분쟁 조정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소비자가 조정을 수락하면 당사자인 금융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대법 판결·소멸시효 끝났지만…

# 은행, 도의적 책임 ‘현재진행형’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 위반 등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여지 남아 ‘판매사, 평판 리스크 회복 기회’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뒤 올해 7월 자율조정 일환의 은행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구체적 배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키코 자율배상 여부를 알려 달라고 시중은행들에 요청한 상태다.

키코 사태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소멸시효는 뛰어넘기 어렵다는 점과 금감원 분쟁 조정의 비구속적 속성이 갖는 한계를 확인시켜 줬다. 어쩌면 금감원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의 행보는 의미 있다. 일각에선 금융지주와 정부의 관계를 읽지 못하는 등 ‘정무적 센스’가 없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소비자보호 신념은 끝내 지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교수 시절부터 “키코는 사기 상품”이라는 소신을 보였다. 금융위원회가 꾸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도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제 키코 사태는 마지막 절치만이 남아 있다. 자율 배상을 위해 꾸려진 자율협의체에서는 상생 기금 조성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법적 책임에선 자유롭다고 외치지만, ‘도의적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키코 피해 기업 관계자는 “은행들이 배상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법원 공탁금 등 피해자에게 전달할 방안은 찾아보면 된다”며 “키코 사태가 마무리된다면 은행들의 평판 리스크도 회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ij@



## 순간을 넘어 일생의 행복까지 한화손해보험

가족의 행복이 곧 당신의 행복이기에 우리의 생각은 당신의 삶을 넘어섭니다. 순간을 넘어 일생까지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LIFEPLUS는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 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 2차 지원금 선별지급 '시끌'

4차 추경 통해 7조 확보, 자영업자·특고·저소득층에 투입  
"맞춤형 지원 좋지만 불공정 소지... 코로나 피해 입증 숙제"

정부가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1차와 달리 취약·피해계층에 선별 지원하기로 하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도 선별 지원을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역시 선별에 따른 2차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안전망 밖에서 실적, 급여감소, 매출악화, 폐업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취약·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경안을 급급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추경안의 핵심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1차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취약·피해계층에만 지원한다. 정부는 7조 원대 중반의

추경 예산 가운데 3조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 대상을 추진하는 계획이다. 2조 원으로 예상되는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조 원대 중반 정도는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에 투입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4월이나 지급이나 마찬가지다. 국세청이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갖고 있지만, 올해 1~8월 소득과 매출 변동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업종 내 선정 형평성, 업종 간 형평성 논란과 자영업자와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 간 형평성, 게다가 가구의 경제적 여건은 알 수 없는 매출 감소만 기준이 될 경우 자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최한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저소득층 복지 수급자나 6월부터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인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자 등에 추가 지원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8월 이후 소득매출 변동은 반영해 추석 전 선별지원은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맞춤형 지원이 많을 좋지만 정말 정부가 필요한 사람을 빠짐없이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추석 이후 고용상황이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점점 더 녹록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사회안전망 체계 보강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일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사는 "선별 지원의 경우 1차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지급돼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일부 업종만 지원하면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 1년  
"대기업 물류 내부거래 해소할 자율지침 마련"  
"구글 애플 수수료 인상 조사"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대기업 집단 내 내부거래가 고착화한 물류시장에서의 일감나누기 문화 정착을 위한 연성규범(자율적 준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시책 개선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추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 기업들에 '일감개발 자율준수기준'을 연내 배포하고, 일감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건전한 생태계 마련과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일감 나눔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총수일가 사악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입법화에 대해서는 "제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개정안의 방향과 취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기업이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했다.

갑을관계 개선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조선, 자동차 등 고질적 범위업종, 기술유용 반발업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치킨업종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생활이나 산업경쟁력을 저해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담합 행위를 적극 조사·제재하고, 배달의민족·요기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시장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애플 수수료 인상 이슈에 대해 구글이 앱을 독점 출시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현대중공업 "코로나 아니길..."

현대중공업은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7층 규모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2000여 명의 직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울산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첨단산업 외투 늘린다... 투자금 상한 30%→40%

### R&D센터 조성 40%→50%

### 대전 단지형 외투 지역 지정

정부가 첨단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금지원 상한 비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제2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운영요령'과 '외투 지역 운영지침'을 각각 개정했다.

우선 첨단산업의 경우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을 최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연구개발(R&D)센터를 조성하면 기존 40%에서

5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국고보조율도 수도권은 30%에서 40%로, 비수도권은 60%에서 70%로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

특히 대학교 내 첨단 R&D센터를 '서비스형 외투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건물임대료 지원도 50%에서 75%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바이오와 신재생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를 중점 유치하기 위해 대전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대전에 외투지역이 조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단지형 외투지역은 8만3566㎡(약 2만5278평)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까지 8개 기업(투자액 2410만 달러) 입주가 예정돼 있다.

위원회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스템 생산업체인 베바스코리아홀딩스가 충남 당진 송산 2-2 외투 지역에 입주하는 건도 승인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은 5830만 달러이며 고용 인원은 30명 규모다.

아울러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선두주자인 천안의 한국유미코아와 고성능 전력반도체 설계 분야의 라이언세미컨덕터 R&D센터 2곳을 '외투 R&D센터'로 새로 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첨단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첨단산업 세계 공략" 달성을 위해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환경과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내년 물관리 예산 1조... "홍수·가뭄 대비하고 식수 안전하게"

댐·상하수도 스마트체계 도입

환경부가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먹는 물 관리 강화 등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내년 1조7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환경부는 노후화가 계속되는 댐, 상하수도 등의 물관리 기반시설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스마트센서를 활용

한 실시간 모니터링, 드론 기반 안전점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스마트 댐 안전관리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한다.

또 2023년까지 정보통신(ICT) 및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감시·제어 체계를 광역 상수도·지방상수도 등 전 시설에 도입하기 위해 4453억 원의 예산을 들인다. 2024년까지는 스마트 하수처리장, 스마트 하수관

로 등의 구축을 추진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하수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올해 폭우로 관심이 높아진 홍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108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2023년까지 홍수에 취약한 100개 지류 하천에 수위·강수량 등 홍수정보 수집 센서를 확충한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홍수예보를 시·공간적으로 확

## 방역당국 "확진 감소세 땀 2.5단계 추가 연장 안해"

추석 연휴 통행료 유료 전환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면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9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환자 발생 추세는 확실하게 꺾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해 하루 100명대로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강화된 거리두기가 5일 남은 시점에서 좀 더 노력한다면 확연하게 안정된 상태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인 거리두기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6명으로, 이 중 국내발생은 144명으로 집계돼 일주일 연속 확진자 증가는 100명대에 머물렀다.

중대본은 수도권에서 13일까지 시행하기로 한 2.5단계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것을 우려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장치로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등도 검토한다. 윤 총괄반장은 "추석에 고향·친지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한 방법이라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대량 생산 계획이 언급됐던 코로나19 항체치료제는 아직 임상 시험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상업용 항체 대량생산이라는 것은, 현재약품 허가 과정에 필수적인 생산 공정 검증에 연구용이 아닌 상업용 생산시설에서의 생산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아직은 임상 1상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임상 단계를 거쳐 약효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돼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대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 기획단'을 발족해 근본적인 홍수 대책을 마련하고, 섬 지역 등 급수취약지역에는 상수도 확충사업, 해수 담수화 등으로 가뭄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천 수돗물 유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60개 지방자치단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생물체 유입·유출 5중 차단 등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고꾸라진 나스닥... “韓 증시, 가격 부담 낮아 충격 작을 것”

## ‘美 하락장’ 전문가 긴급진단

질주하던 전 세계 증시에 ‘패닉(공포)’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3일 미국에서 시작된 기술주 주가 폭락 사태는 유럽증시를 강타했고,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돌더니 9일 다시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에 파급되는 두려워할 만한 위력을 발휘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10포인트(1.09%) 내린 2375.81에 거래를 마쳤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던 IT주와 뉴욕증시가 갑자기 흔들리자 1999년 닷컴 버블 붕괴와 2020년 주식 장이 님은팔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하락장은 금리·달러 가치 전망, 투자자 심리, 펀더멘털 등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1999년과는 다르다고 진단한다. 이 때문에 향후 코스피 흐름은 추가 하락보다 현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 “빅테크 주도의 끝은 폭락” vs “미니 버블” =이날 코스피지수는 급등락 끝에 1.09% 하락했다. 뉴욕발 충격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전날(현지시간) 뉴욕증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32.42포인트(2.25%) 하락한 2만7500.89에 마감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이날 1만847.69로 전장보다 465.44포인트(4.11%) 급락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가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나스닥 급등세가 언제 마칠지를 두고

## 과거 ‘닷컴버블’과 성격 달라

“기술주 등 성장주 많이 올랐지만 가치주와의 격차 크지 않아”

## 기술주 추격보다 다음 장 대비

“백신 출시, 경제활동 재개 시 시장 재편 증시 화두로 떠오를 것”

시장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최근 애플 CEO인 팀 쿡이 회사 주식을 팔고, 테슬라의 2대 주주인 베일리 기포드가 지분을 줄이는 등 내부자 매도 뉴스가 시장에 신호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내부자가 자사 주가가 너무 올랐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2의 닷컴버블’ 논란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지나친 상승 속도에 ‘미니 버블’이 낀 것은 맞지만, 그때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버블’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지만, 현 시장은 과거 닷컴 버블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기술주 등 관련 성장주가 많이 오르긴 했어도 가치주와의 격차가 닷컴 버블 시기만큼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 센터장은 “특정 종목들이 굉장히 고평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유 있는 상승이었다. 다만,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줄어들 때까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

## 리서치센터장이 전망하는 美 증시 하락장 영향

과도한 언택트 추격 매수 지양... 언택트 →택트로 증시 재편 여부 주목	국내 증시 조정반타라도 현재 고공권... 시장 상황 염두에 둔 투자 자세 필요	코스피 올해 어닝전망에 적당한 수준... IT 중장기적 관심 필요	글로벌 시장, 성장주 과열 분위기... 국내 증시도 고민 필요해	국내 증시 조정 폭 제한적... BBIG 등 주도주 분할 매수 전략
				
김유겸 케이트투자증권 센터장	김학균 신영증권 센터장	박기현 유안타증권 센터장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센터장	최석원 SK증권 센터장

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 폭락에도 국내 증시는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조정 강도도 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기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증시도 여파가 있긴 하겠지만, 미국의 조정 폭보다는 작을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도 미국보다 낮고 성장률에서도 우월하다. 그리고 몇 년간 달려온 미국과의 갭을 이제 좁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조정을 더 크게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기술주 ‘쏠림’은 경계, 펀더멘털 회복 여부 등 살펴봐야... 다만 미 증시를 참고해 국내 증시에서도 기술 성장주에 지나친 쏠림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이 독보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왔다. 시장에선 해당 종목에 대해 실질적 이익 체력 대비 과도한 고평가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근 대형 기술주 하락을 두고 ‘건전한 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유겸 케이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최근 기술주 중심의 시장 과열을 우려하면

서 향후 시장 재편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 백신 출시는 곧 경제활동 재개를 시사한다”며 “향후 ‘언택트’에서 ‘택트’로의 시장 재편은 증시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아 지긴 했다”며 “성장주를 현금이나 고배당주 같은 방어주와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목소리 커진 ‘닥터들’

# “막연히 주식 샀다면 팔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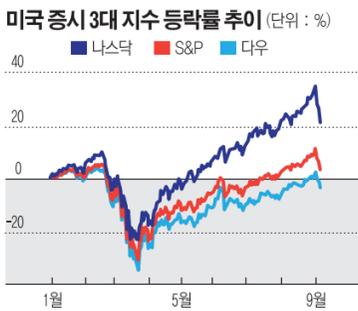
“주식시장 거품 역사상 최대 규모 10% 이상 추가 조정 일어날 것”

“주가, 종종 난기류 동반” 낙관론도

미국 주식시장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20년 전 닷컴버블 붕괴를 떠올리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일시적 조정장 진입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8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전했다.

집 크레이머 CNBC 주식 해설가 겸 진행자는 2000년 닷컴버블 붕괴를 떠올린 사람 중 하나였다. 크레이머는 “(주식) 초보자들에게 간청하겠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왜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라면서 “혹시 단순히 모멘텀을 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게 다라면,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2000년에 매도를 충분히 외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하고 있다. 모두 마찬가지로 앞으로 생각한다”면서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문사 워싱턴피크 창립자인 앤드루 팔린도 약세장을 점치는 전문가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이번 거품이 언제 끝날지 말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엄청난 자산 매입에 나서고 2%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완화하고 있어 이번 거품은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거품은 수축하지 않고 터질 때까지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한 번 터지면 충격이 그만큼 크며 여파도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매트 멀레이 밀러타바 수석 시장투자전략가는 “지난주 초까지 우리가 봤던 지표들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살폈을 때,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온건한 하락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면서 “10% 이상의 추가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 글로벌 전략가는 최근 증시의 가파른 조정에도 강세장이 더 지속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 상승 △정부 및 중앙은행의 지원 지속 △마이너스인 실질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등이 포함됐다.

오펜하이머 전략가는 “또 다른 코로나19 감염 물결이 경제를 파괴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오히려 새로운 주기로 접어들어 첫 단계인 ‘희망’ 상태에 놓일 것”이라며 “중중 이런 초기 단계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투자자들이 기대치를 현실에 맞춰 낮추면서 종종 약간의 난기류를 동반한다. 이에 희망 단계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희망 단계란 골드만삭스가 희망, 성장, 낙관, 절망으로 구분한 주식시장 주기 중 첫 번째 단계다.

변효선 기자 hsbun@

# 지금은 마음의 손을 잡을 때

함께 손잡고 건널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배웁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손을 맞잡은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 “윤영찬 메시지, 유죄 가능성” 총공세 나선 국민의힘

###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조사... 개인 일탈 아냐” TF 구성 이정현 전 靑수석 사례까지 들어... 윤 “송구, 질책 받겠다”

국민의힘이 9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 압박성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개인의 일탈 차원 문제가 아니고, 사안 자체가 너무 중대하다”며 유죄 가능성도 거론하며 맹공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과거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전화 한 통 해서 유죄 받았다”며 “그 사안에 비교하면, (윤영찬 의원이) 전화를 한 통 한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 관계자들) 직접 불러서 겁박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는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까지 (표

현)했으니 사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과거 이정현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와 편성에 개입·관련한 혐의로 벌금형 10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2014년 4월 21일과 30일 두 차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고성으로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했다. 이는 방송법 제정 33년 만에 나온 최초 유죄 확정판결 사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포털 측에서는 뉴스편집을 100% 인공지능(AI)으로 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AI가 하는 것을 힘으로 밀어붙여 고치겠다고 한 것”이라며 “민간회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야당일 때는 ‘드루킹’, 여당일 때는 그냥 ‘킹’인가”라며 “청와대에서 해오던 포털통제를 그대로 장소만 옮겨 국회에서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영향력이 통했는지 이 시간에 주호영 대표 연설기사는 빠져 있으며, 온 언론에 도배되어있는 윤영찬 사건 기사도 안 보인다”며 “야당 의원이 이렇게 행동했다면 현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급기야 이번 논란과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론이 포털을 장악하려고 했고 좌우하려고 한 것을 보여주는 사태”라며 “당력을 총동원한 TF를 만들어 끝까지 파헤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날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이가 메신저 대화를 통해 “주호영 연설은 매인에 바로 반영되네요”라고 하자 “이거 카카오톡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카카오톡 너무 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답한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보좌진과 나는 문자가 보도됐고, 비판을 받고 있다.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 질책을 받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이낙연 체제 인선 마무리 전략기획위원장에 정태호 문 정부와 공조 의지 보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략기획위원장에 정태호 의원(조선·서울 관악을)을 임명하는 등 중앙당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 문재인 정부와 발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무직 당직자 임명을 의결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일자리수석을 지난 4·15 총선에서 관악구에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울러 수석 사무부총장엔 권철승 의원(재선·경기 화성병), 조직 사무부총장에는 김철민(재선·경기 안산상록을), 미래 사무부총장에는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임명됐다. 법률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희재(조선·전남 여수을) 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은 한국노총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의원이 맡았다.

이 밖에도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도전했던 김한규 강남병 지역위원장은 법률대변인에 임명됐다. 노동대변인에는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 상근부대변인에는 박성현 동래구 지역위원장, 박진영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이 선임됐다.

이울러 이날 최고위에서는 미래전략 K-뉴딜위원회 정무직 당직자 임명 건도 의결됐다. 위원장은 김태연 원내대표가, 부위원장은 양항자 최고위원, 한정에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총괄본부장은 이광재 의원, 총괄본부장은 유동수 의원, 예산 담당 K-뉴딜지원단장은 박홍근 의원, 입법 담당 K-뉴딜지원단장은 조승래 의원, 지역 담당 K-뉴딜지원단장은 강훈식 의원이 담당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문 대통령 “당정관계 환상적... 함께 국난 극복”

### 이낙연 “당정청은 공동운명체... 야당과 일대일 대화 나서달라”

#### 靑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당정 간 긴밀한 소통으로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 당정 간 관계는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좋은 관계”라면서 “앞으로도 당정이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국난 극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4차 추경안 그리고 긴급재난 지원 방안의 마련, 또 지금의 국난 극복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켜 가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마련까지 당정이 최선의 방안을 찾아주셨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경제, 국민 삶에도 아주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면서 이낙연 대표의 국회 대표 연설을 언급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라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국난 극복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이 할 일이 대단히 많다”면서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극복을 꼽았다. 이어 “두 번째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것,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수처를 포함한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은 이번 회기 내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 준비에는 당연히 한국판 뉴딜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지만 여야 대표 간 회동 또는 일대일 회담이든 좋으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골치 아프네” 김태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확산에 이어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자 곤혹스러운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9월호 발매

COVERSTORY 브라보! 음악에 차어스!

PART1. 음악의 가치 음악은 늙지 않는다  
PART2. 종장년 음악문화 서베이 헤드라이는 변했어도 소프트한 감성은 그대로  
PART3. 추억 속 음악 찾기 숫자로 알아보는 추억의 열쇳말  
PART4. 음악에 반하다 신의 음조원 선율로 듣는다  
PART5. 노래가 삶을 부를 때 인생 오선지 위 음표처럼 박힌 그때 그 노래  
PART6. 음악 감상실을 가다 LP 한 장 들고 떠나는 감상여행

더불어 숲  
내 마음에 구불  
건히면 부처가 보인다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나만의 낙원을 꿈꾸었다, 그러나...  
안녕, 시골아, 드디어 내가 너에게 왔노래  
그때엔 그렇게 온갖 인사말을 울음 거품이 없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다 귀촌한 김영영(48) 씨. 그의 귀는 얼은 귀였나? 그는 “농지매 잡이머 거치 쓸 수 있으니 몸만 오락는 지인의 도움지근한 권유를 받고 설레어 달려 내려간 참이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상황이 영 달랐다.

김영영의 느린 여행  
버려진 시골집의 재탄생 ‘규암리자은길’  
백재고도 부여에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백제 유적지 일고는 이렇다 할 관광 콘텐츠가 없어 아쉬웠다. 2년 전 규암면 규암리 자은리에 ‘자은길 프로젝트’는 마을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 첫 단추가 독립서점 ‘책방시간’이었다. 호기심을 먹고 찾아간 시골 책방은 꽤 신선했다. 지금 그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에 다시 가왔다.

생생 부동산 현장 비규제지역에 가려진 ‘일짜’ 호재들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한 지역이 있다. 부동산 규제를 피해 아직 안전하다. 투자할 만하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수요가 몰린 김포한강신도시다. 그렇다면 다른 호재는 없는 걸까. 김포한강신도시의 잠재된 미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왔다.

엄마가 엄마에게  
면역력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육류와 버섯,  
녹황색 채소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농자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  
늦추면 더 받는  
‘볼볼한’ 국민연금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 SK하이닉스 첨단동화

## 혹부리영감



만약 이때,  
SK하이닉스 대용량 낸드플래시\*  
기술이

없었다면

있었다면

영감은 자신의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한다

혹을 떼려 거짓말을 하는  
혹부리 영감들이 늘어난다

화가난 도깨비들이  
혹부리 영감들에게  
더 큰 혹을 붙여버린다

고품질 음원과  
고화질 뮤직비디오가 담긴 SSD를  
도깨비에게 선물한다

음악에 신난 도깨비가  
영감의 혹을 떼어준다

도깨비는 프로듀서로  
영감은 MC혹부리로 데뷔한다

대한민국의 음악을  
세계적으로 알린다

첨단 반도체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낸드플래시  
데이터의 저장 장치로서,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보존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PC, 스마트폰의 주저장 장치로 활용.

# 10월 백신 서프라이즈 없다...“안전 우선” 반기 든 제약사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  
9개 글로벌 제약사 조기승인 거부  
꽃아스트라, 3상 임상 시험 중단



### 백신 조기 승인 거부 서약

#### 참여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사노피, 노바백스, J&J, 바이오엔테크, 머크, GSK

#### 주요 내용

- 1 안전과 접종하는 사람의 건강을 최우선
- 2 과학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갖고 임상시험 및 제조
- 3 최종 임상시험 마치고 안전과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만 당국에 승인 요청
- 4 글로벌 공급 체제 정비

미국 대선 레이스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10월 조기 출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9개 글로벌 제약사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승인 거부 선언을 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상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긴급 접종을 검토하자 업계 측에서 정치적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임상 최종단계 시험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존슨앤드존슨(J&J), 바이오엔테크, 사노피, 머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글로벌 제약사 9곳은 “백신의 조기 승인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승인 신청을 내겠다”며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과학과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 세계 규제 당국에 백신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학의 무결성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공중보건을 위해 접종을 받은 개인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다짐

했다.

이번 서약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이유로 백신 출시를 앞당기려 한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에는 5~10년이 걸리는데, 제약업계는 1년 내 개발을 목표로 이례적인 속도로 개발 및 임상 시험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백신에 대한 기대가 앞서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의 임상 3상 시험이 진행되기도 전에 승인을 해 ‘세계 최초 백신’이라고 홍보하며 접종을 나섰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조기 백신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노동절 유세에서도 “우리는 아주 빨리 백신을 가질 것”이라며 “매우 특별한 날짜(대통령 선거일) 이전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내부에 ‘딤스테이트(미국 정부 내부의 기득권 세력을 뜻하는 음모론자들 용어)’ 일원이 있어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연기

하고 있다고 음모론을 퍼기도 했다.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해 대선 이후로 백신 승인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FDA는 8일 트위터에 “정치적 압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안전성과 효능에서 미국인이 기대하는 높은 기준이 달성된 경우에만 승인하겠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미국 내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대선 전까지 백신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올 연말까지 준비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한편 이날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포드대와 공동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혀 안전성 우려를 키웠다. 영국에서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을 나타내 전 세계 임상을 일시 중단한다고 한다.

이 여파로 주요 제약업체의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시간 외 거래에서 7% 넘게 폭락했고, 화이자도 전 거래일보다 1.18%, 모더나는 13.19% 각각 주저앉았다. 최혜림 기자 rog@

## “손정의, 나스닥 고래의 일각” ‘꾼들의 놀이터’ 된 옵션시장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최근 미국 기술주를 대상으로 콜옵션 거래를 주도해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큰손인 ‘나스닥 고래’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손정의 회장은 빙산의 일각이며 최근 거대 기관투자자들이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지수 랠리에 참여하고자 파생상품 거래에 뛰어들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RBC캐피탈마켓의 에이미 우실버맨 투자전략가는 “소수 기술

와 페이스북, 어도비, 세일즈포스닷컴을 대상으로 한 옵션거래에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해당 거래 모두가 주가 상승에서 이익을 얻는 콜옵션이었다.

최근 뉴욕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천당에서 지옥으로 순식간에 추락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극대화하는 옵션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소프트뱅크는 미국 기술주 강세에 상당한 베팅을 했는데 7일 주가가 7.2% 폭락했다. 이

### 한 달간 콜옵션 프리미엄에 14억 달러 유입 MS·페북 등 옵션거래에 기관투자자 대거 참여 “주가 폭락 계속되면 최소 10억 달러 이상 손실”

기업을 대상으로 옵션시장에서 포착된 강세 베팅은 무려 10억 달러(약 1조1900억 원) 이상의 거래액이 투입되는 등 대형 기관투자자가 개입한 거래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레이드얼럿의 헨리 슈워츠 사장은 “지난달 한 달간 콜옵션 프리미엄에 들어간 자금이 약 14억 달러에 달했다”고 추산했다. 프리미엄은 콜옵션을 사기 위한 최소한의 수수료 성격이어서 실제 강세장에 베팅한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RBC와 트레이드얼럿 모두 지난달 5일 마이크로소프트(MS)

는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었다.

그러나 옵션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콜옵션에 뛰어들어 기관투자자가 소프트뱅크만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실버맨 투자전략가는 “8월 초 콜옵션 거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간에 이들은 최근 뉴욕증시 폭락에도 여전히 장부상 이익을 얻고 있다”며 “그러나 만기일에 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 8일(현지시간) 눈이 내리고 있다. 9월에 내린 이번 폭설이 이례적인 것은 극단적인 기상 변화 때문. 콜로라도는 전날까지 최고 38.3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는데 불과 하루 만에 영하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한여름에서 겨울로 전환했다. 이는 1961년 9월 3일 이후 59년 만에 가장 이른 첫눈이다. 미국 기상청은 “북부 한랭전선의 급격한 확장으로 날씨가 급격히 변했다”며 “이번 주 후반에는 추위가 차츰 진정돼 주말에는 20도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덴버/AFP연합뉴스

## ‘전기차 쌍두마차’ 주식시장서 알곳은 운명 니콜라 시총 ‘충전’...테슬라 ‘방전’

GM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니콜라, 8일 주가 41% 폭등  
테슬라는 -21% ‘최대 낙폭’

### 5거래일간 니콜라·테슬라 주가 등락률 추이(단위: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전기 혁명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각각 나눠 가진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니콜라와 테슬라의 주가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8일(현지시간)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니콜라 주가는 41% 폭등한 반면, 테슬라는 21% 폭락했다. 이로써 테슬라는 2010년 상장 이후 일일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 2월 27일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약세장에 진입했다. 불과 1주일 전 498.3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테슬라 주가는 이날까지 33.7% 하락했다.

지난 4일 뉴욕증시 벤치마크인 S&P500지수 편입 실패와 더불어 니콜라와 제너럴모터스(GM)의 협업 소식이 이날 테슬라의 주가 폭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마켓워치는 분석했다.

이날 GM은 니콜라 지분 11%를 약 20억 달러(약 2조3780억 원)에 인수하고, 임원 1명을 지명할 권리를 확보하는 한편, 니콜라의 수소전기트럭

‘배저’를 설계·제조하기로 했다. 이 소식에 GM 주가도 8% 가까이 뛰었다. 니콜라는 지난 6월 역합병을 통해 나스닥거래소에 상장한 후 ‘테슬라의 대항마’로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니콜라는 아직 실물로 만들어낸 자동차가 한 대도 없지만, 투자자들은 니콜라의 비전에 열광했다. 여기에 대량 생산 노하우가 풍부한 전통차 업체 GM과 손을 잡으면서 꿈만 같았던 비전을 실현하게 됐다.

반면 전기차 선구자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아온 테슬라는 니콜라의 등장에 빛이 바랬다. 특히 테슬라 주가는 올해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날 주가 폭락으로 증발한 시가총액은 무려 820억 달러에 이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원유소비 성수기 끝났다... 국제유가 8% 가까이 폭락

코로나19 확산, 수요 회복 저해 우려  
사우디아라비아 2차 수출가격 인하 영향

국제유가가 8일(현지시간) 8% 가까이 떨어지며 3개월 만의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원유 수요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까닭이다. 여가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 수출 가격을 인하하기로 한 것도 유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3.01달러(7.6%) 내린 배럴당 36.76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 10월

물론 2.25달러(5.36%) 하락한 배럴당 39.76달러에 장을 마쳤다. 두 유종 모두 6일 이후 처음 4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최근 몇 달 간 이어진 원유 소비 회복세가 끝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원유 수요 절정기로 불리는 ‘노동절’ 연휴가 7일 지나가면서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막을 내렸다고 봤다. 통상 5월 메모리얼 데이(현충일)부터 9월 노동절까지가 자동차 운행이 늘어나는 드라이빙 시즌으로 분류된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항공기와 차량 이동이 제한돼 원유 수요가 급감, 4월 한때 국제유가는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졌다. 이후

부분적 폐쇄 조치 완화로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산유국들이 감산을 단행하면서 유가는 다시 회복됐었다.

여가다 이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5일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는 원유 가격을 배럴당 1~2달러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 하락 압력을 키웠다. 향후 원유 수요 감소를 예상한 선제 조치로 해석된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고객들에 보낸 노트에서 “글로벌 원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3년은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각국에 보급되지 않으면 여객 수요 회복이 둔화해 유가 상승을 계속 억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이동걸 회장, 사실상 연임... 아시아나항공 마침표 찍는다

## 산은, 26년 만에 연임 수장 탄생하나

이동걸(사진) 산업은행 회장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 매듭되지 않은 구조조정 사안이 다시 이 회장의 손을 거치게 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오는 10월 3년 임기가 끝난다.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검증절차를 거치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산은 회장은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임기 만료 직전까지 연임 여부나 후임자 선정 자체가 안갯속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 코로나에 금융 지원 연속성 부각 지엠 등 구조조정 해결사 호평 본연 역할 수행 체질 개선 기여

이 회장의 연임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은의 중요성이 강조된 연유와 무관치 않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의 3분의 1 수준인 1조 5000억 원을 산은 출자에 쓰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조성되는 뉴딜펀드 등에 사용된다. 금융지원에 연속성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새로운 회장 선임보다는 그간 위기에서 직무를 잘 수행해 온 이 회장을 연임시키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회장은 '잘해도 본전'인 산은의 수장 자리에서 구조조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왔다. 취임 초기부터 한국지엠·금호

타이어·STX조선해양·동부제철 등 굵직한 구조조정 안건을 마무리했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 골칫거리로 남았던 대우조선해양도 현대중공업에 합병하는 방식으로 매각에 성공하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산은 내부에서도 "이 회장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했다.

임기가 막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선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과 직접 만나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주도하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때만 하더라도 구조조정 적임자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 상황이 달라지고 매각도 최근 난항을 겪었다. 연임 이후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여

전히 두산중공업과 대한항공 등도 남아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산은의 체질개선에도 힘을 써왔다. 산은이 그간 구조조정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면서 정작 산업을 육성하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이곳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고 산은은 은행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구조조정 문제에 관심이 집중될 때도 이 회장은 줄곧 "산은의 다른 업무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할 정도로 체질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산은은 26년 만에 연임하는 수장이 탄생했다. 1954년 설립된 이후 산은의 수장이 연임하는 사례는 구용서, 김원기, 이형구 총재 등 3명이었다. 곽진산 기자 jinsan@

## 빚 독촉 '주 7회 이상' 못한다

### 금융위, 소비자신용법 발표 불법·과잉 추심에 손배소 청구 채권기관 채무조정 협상 요청 가능

채무자가 받는 과도한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추심업자는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 불법·과잉 추심에는 법정 손해 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 자격으로 채무 상황이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영상으로 진행된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대부업법을 뜯어고친 후 추심·채무조정 등 규율을 추가해 '소비자신용법안'으로 체계를 변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존 대부업법이 개인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을 줄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 추심법 등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추심행위만 금지할 뿐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선 연체채무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기한 내 갚지 못한 연체액에 부과되는 연체 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

으면 채무원금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채권 금융기관이 개인 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 시 약정일자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현재 채권금융기관은 회수불능 개인연체채권을 상각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 이자를 부과하고 있었다.

추심연락도 제한된다.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하는 것은 금지된다. 동일한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권금융기관,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연락행위를 모두 합산된 수치다. 채권추심자가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을 하면 안 된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는 자격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무조정교섭권도 도입된다. 이 권리를 통해 개인과 채권금융기관의 사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12월까지 입법예고 및 법적제 심사를 마치고 내년 1분기 안으로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곽진산 기자 jinsan@

## 노후 걱정없는 '금퇴족' 평균 금융자산 1.2억

하나금융그룹이 은퇴 이후에 대비해 금융자산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붙인 '금(金)퇴족'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9일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가 30~55세 남성 금퇴족을 조사해 발간한 '100년 행복, 금퇴족으로 사는 법' 보고서에 따르면 금퇴족의 평균 금융 자산은 전체 조사대상(9000만 원)보다 35% 많았다.

나이대별로는 △30~34세 6000만 원 △35~39세 1억1000만 원 △40~44세 2억 원 △45~49세 3억2000만 원 △50~55세 3억9000만 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규모는 늘어났다.

금퇴족과 일반인의 자산 규모는 40대부터 벌어졌다. 40대 초반 금퇴족의 금융자산은 전체보다 1억 원 이상 많다. 금퇴족

과 일반인의 자산 차이가 5000만 원인 30대 후반과 비교해 그 차이가 2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이다.

금융상품 구성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금퇴족은 전 연령대에서 전체 보유 금융자산 중 60% 이상이 펀드·연금·신탁이었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7~15%포인트 높은 수치다.

금퇴족의 주식 투자비중은 40~44세, 펀드 투자 규모는 45~49세에 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40~44세 금퇴족은 일반 펀드와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을 통해 금융자산 중 15%를 주식에 배분했다. 이는 같은 연령대(6%)에 비해 9%포인트 높으며,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펀드 투자 규모는 45~49세가 평균 5900만 원으로 가장 컸고, 5800만 원의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문수빈 기자 bean@

## 영끌·빚투에... 8월 가계대출 14兆 폭증

###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 주담대·신용대출 크게 늘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구입과 주식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말 대비 14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진행된 '비상경제중양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과도한 신용대출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한 만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부문별로 보면 은행권 대출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심으로 1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제2금융권은 카드대출과 보험사 계약대출의 증가 등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했다.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 2016년 11월 당시 15조20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흐름인지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현재 주택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신용대출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분석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DSR 적용실태와 실수요 요건 대출 약정 이행여부 등 규제 전반의 이행상황을 점검 중이고, 향후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타대출은 총 7조7000억 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신용대출이 6조2000억 원 늘었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저금리 상황에서 신용대출 수요 확대 등으로 5조7000억 원 증가했고, 은행권 신용대출은 5조3000억 원 늘었다.

기타대출은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예·적금과 주식담보대출, 상가·오피스텔 담보대출 등을 말한다. 기타대출 급증 원인은 주택자금 수요 외에 주식투자자와 생활자금 수요 등이 꼽힌다.

제2금융권은 카드대출과 보험사 계약대출 증가로 2조 원 증가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사 대출과 보험사 대출이 늘어난 것은 은행권에

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계층의 긴급 자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은 6조3000억 원 증가했다. 은행권은 전세자금대출(3조4000억 원)과 일반 주택담보대출(1조9000억 원) 증가 등이 원인이다. 제2금융권 주담대는 2000억 원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주택 매매자금 수요와 전세자금 수요 등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이 그 배경이다.

윤옥자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과장은 "주담대는 6월 이후 수도권 주택매매거래가 늘자 시차를 두고 대출이 시행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 확대도 (대출 증가에) 가세했다"며 "기타대출의 경우 수도권 분양 입주가 늘어나 제반자금이 신용대출로 이어진 부분이 있었다. 주식투자에선 공모주 청약 증거금납입 수요와 상장주식에 대한 증시자금 유입이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기자 contest@

## 신한銀 '적도원칙' 가입...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적도 부근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대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2020년 9월 현재 38개국 109개 금융회사가 가입했다. 국내에서는 KDB산업은행이 소속돼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프로세스 구축을 실시했다. △적도원칙 가입 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 가입을 준비해 왔다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불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불 이상인 기업대출 등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 나란히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ESG 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종이통장 사용 줄이기 캠페인 '종이절약 지구살리기 운동'을 진행 중이다. '예금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맞춰 종이통장 없이도 예금 신규,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3분기 영업이익 예상〉

# 화웨이에 발목 잡히나... '10조 잔치'에도 못 웃는 삼성

스마트폰·5G장비·파운드리 순풍 3분기 호실적 전망  
4분기 '美 화웨이 제재' 영향에 반도체 매출 감소 우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 등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 사업부의 영업이익 호조 덕분이다. 그러나 중국 화웨이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4분기는 실적은 불투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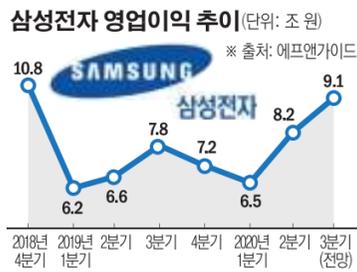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9조 698억 원이다.

그러나 최근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10조1480억 원을 전망치로 제시했고, DB

금융투자증권은 10조 원으로 추정했다. NH투자증권은 10조 2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설 경우, 삼성전자는 2018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10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복귀하게 된다.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는 삼성전자 IM 부문에 달렸다. 삼성전자 IM부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으로 인한 스마트폰 판매 증가, 5G(5세대 이동 통신) 장비 수주 등으로 영업이익 호조를 보이고 있다.

먼저 하반기에 내놓은 스마트폰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갤럭시Z폴드2의 국내 초도 물량은 전작보다 3배 이상 많은 1만 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올해 말까지 70만~80만 대 규모의 갤럭시Z폴드2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전 모델 대비 2배 많은 물량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역시 전 분기 대비 47~4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인도 갈등으로 인도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5G 이동 통신 시장에서의 강세도 이어

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버라이즌과 7조9000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는 한국 통신 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다.

여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가 IBM의 서버용 중앙처리장치(CPU),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퀄컴 5G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까지 생산을 맡기로 하면서 호실적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CE(소비자가전) 부문에서는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TV 또한 3분기에 40%대 성장세가 관측되고 있다.

문제는 4분기 화웨이 변수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 메모리는 물론 5G 모바일·모바일AP 등 시스템 반도체까지 공급이 불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화웨이는 애플, 도이치텔레콤, 테크트로닉스, 버라이즌과 함께 삼성전자의 5대 매출처로 꼽힌다. 이 가운데 화웨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약 3%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기준 약 7조3700억 원 수준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도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액은 208억 달러(약 27조 7000억 원)다. 애플(361억 달러), 삼성전자(334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 중단으로 메모리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화웨이 외 중국 고객사로 매출을 이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웃돈 600만원 붙은 '톰브라운 에디션'

'갤Z폴드2' 한정판 추첨 23만명 몰려 열기 후끈



갤럭시Z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사진)이 태국, 미국 완판에 이어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갤럭시Z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396만 원) 한정 판매에 23만 명 이상이 응모했다.

고가인데다 응모 초기 선착순 구매가 아닌 추첨 응모임에도 응모 대기열이 5000명까지 형성되기도 했다.

갤럭시Z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은 전 세계에 5000대 한정 판매된다.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Z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이 초기에 매진되며 품귀현상을 빚은 점을 고려해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Z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 판매에는 온라인 추첨 방식을 도입했다.

일부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396만 원인 이 패키지를 100만~600만 원 수준의 웃돈을 주고 사겠다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Z폴드2는 언택 이후 제품 자체의 성능, 디자인 여러 호평에 힘입어 더욱 폭발적인 소비자 관심을 끌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이동 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에 배정된 갤럭시Z폴드2 초도 물량은 1만 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폴드'의 초도 물량이 2000~3000대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

배 이상 커진 규모다. 작년 갤럭시 폴드는 출시 초반에 품귀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말까지 70만~80만 대 규모의 갤럭시Z폴드2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전 모델 대비 두 배 많은 물량이다. 전작 '갤럭시 폴드'는 지난해 40만 대 가까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톰브라운 에디션 판매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갤럭시 Z 폴드2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중고 보상 프로그램,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11일부터 사전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식 출시는 18일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 KCC글라스, 코리아오토글라스 합병

정몽익 회장, 최대 주주로  
KCC '2세 분리경영' 속도

KCC글라스와 코리아오토글라스가 합병한다. KCC그룹 2세대들의 분리 경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9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에 대해 결의하고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달 29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어 최종 승인을 거친 뒤 12월 1일까지 합병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KCC글라스와 코리아오토글라스는 "건축용 및 자동차용 유리에 대한 원재료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영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물론 기술개발역량 집중을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CC글라스는 올해 1월 KCC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로 유리와 상재, 인테리어 등



을 주요 사업으로 두고 있다. 국내 판유리 시장의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인테리어 시장에서 자체 브랜드인 흙씨씨를 통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코리아오토글라스는 자동차용 안전유리와 콘크리트 파일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회사의 매출 중 약 90%를 차지하는 자동차용 안전유리 부문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주요 벤더로서 다양한 차종에 납품하고 있으며 수출을 통해 시장 점유율 약 7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KCC그룹의 2세 경영 구도는 확실하게 분리됐다. 장남인 정몽진 회장이 KCC를 맡고 차남인 정몽익(사진) 회장이 KCC글라스, 막내 정몽열 회장이 KCC건설을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 '전투기 조종석' 변신

제네시스 G70이 3년 만에 부분변경 모델로 돌아왔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더 뉴 G70은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쿼드램프'로 불리는 2줄의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를 도입했다.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은 헤드램프보다 낮게 위치하고, 대각선으로 배치된 '쿼드램프'는 속도감과 역동성을 표현했다. 실내는 전투기 조종석을 닮은 운전자 중심 구조를 갖췄다.

제네시스 G70이 3년 만에 부분변경 모델로 돌아왔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더 뉴 G70은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쿼드램프'로 불리는 2줄의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를 도입했다.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은 헤드램프보다 낮게 위치하고, 대각선으로 배치된 '쿼드램프'는 속도감과 역동성을 표현했다. 실내는 전투기 조종석을 닮은 운전자 중심 구조를 갖췄다. 사진제공 현대차

## LG윙, IFA 2020 최고상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윙(LG WING·사진)'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20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유력 IT매체 안드로이드 헤드라인(Android Headlines)은 LG 윙을 'IFA 2020 최고상(Best of IFA 2020)'으로 선정했다. LG 윙이 IFA 2020에서 공개되거나, 전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안드로이드 헤드라



인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도 멀티태스킹에 아주 유용한 제품이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LG 윙은 오는 14일 오후 11시 공개된다. 송영탁 기자 syr@

## 두산중, 국제 인공태양 프로젝트 부품 공급 계약

### 핵융합로 가압기 설계·제작

국제공동 인공태양 프로젝트에 두산중공업이 참여한다.

두산중공업은 영국 자회사인 두산바콕과 컨소시엄을 구성 '국제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ITER)'와 가압기(Pressurizer)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ITER은 태양의 에너지 생산 원리인 핵융합을 이용해 지상에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원인 '인공태양'을 만드는 국제공동 프로젝트다.

핵융합 에너지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건설·운영한다. ITER은 2025년 프랑스 카다라슈 지역에 완공돼 2042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수

주 계약을 체결했다. ITER에 설치된 열교환 시스템의 압력 유지와 과압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가압기를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해 2022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이번 수주를 통해 두산중공업 발전설비의 설계와 제작 역량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라며 "핵융합 상용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플라스틱 생수병을  
종이로 바꿀 수 있을까?



페플라스틱 원단을 활용한 의류 잡화 브랜드  
뭉세누 / 박준범 대표



청년 창작가와 소상공인이 공생하는 디자인 기업  
000간 / 신윤예 대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종이팩 생수 브랜드  
DE Studio / 이창현, 오승범 대표

↑  
폐플라스틱을 패션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  
청년 작가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QR코드를 찍어 [마지막승부]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 사회의 문제는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는 늘리는 창업의 선순환을 만듭니다

하나의 창업이 성공하면  
또 하나의 일자리가 생기고

하나의 소셜벤처가 성장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창업가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소셜벤처아카데미 소셜벤처창업가 육성을 위한 11주 코칭 프로그램 **하나파워오펜런지** 다양한 단계의 사회혁신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상용차·부품사 '코로나궤 감원 태풍'

저수익 구조로 위기 대응 체력 부족  
 만도 200명·대우버스 85% 줄여  
 해외 부품사 컨티넨탈 3만명 감축  
 완성차도 수출 감소로 불확실성 ↑

국내 부품 협력사와 상용차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인력 감축에 나섰다. GM과 BMW 등 세계 완성차 업체도 연이어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완성차 산업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수요와 공급이 모두 위축되자 국내 부품사와 상용차 업체가 먼저 위기를 겪고 있다. 수년 전부터 이미 저수익 구조가 이어졌고, 완성차 업체보다 사업 규모도 작아 위기에 대응할 기초 체력이 부족해졌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달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1차 부품 협력업체 100개사를 조사한 결과, 73개사가 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고용인원은 지난해보다 2.5% 줄었고, 57개사는 평균 임

금도 낮았다. 100개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12.6% 감소했고, 55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부품사 만도는 2000여 명에 달하는 생산직의 10%(약 200명)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희망퇴직을 받기로 3월 말 노조와 합의했고, 트럭과 중장비를 생산하는 타타대우상용차도 이달 말까지 근속연수 1년 미만을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국내 버스 시장을 양분하던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는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원 85%에 대한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는 대응책이 마땅찮은 변수라 업계 전반이 위기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특히, 전동화 부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상태"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 폭풍이 완성차 업계에까지 몰아치고 있다.

GM은 미국에서 4000명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고, 포드도 1만7000여 명을 올해 안으로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 BMW는 정규직 6000명을 줄이고 계약직 1만 명의 고용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 그룹은 2025년까지 1만5000명을 줄일 계획이다. 토요타 역시 북미 공장에서 5000명을, 닛산은 전 세계 공장에서 2만 명을 일시 해고했다.

전 세계적인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낮아지며 업계가 고정비 감축으로 수익성 확보에 나선 상황이었었는데, 코로나19로 대규모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세계 4위 자동차부품사인 컨티넨탈은 지난해 5000여 명의 인력을 줄이기로 한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조조정 인원을 3만 명까지도 확대하기도 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 신차 효과 등에 힘입어 내수에서 선방하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는 만큼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이재용 부회장, 삼성디지털프리카 깜짝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현장 경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리카 삼성 대리점을 찾아 프리미엄 가전 체험 공간인 '데이코 하우스'의 빌트인 가전과 더월 등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세트 부문 사장단과 전략 회의를 가진 직후 예고 없이 이뤄졌다. 현장을 방문한 이 부회장은 판매사원들을 격려하고 이들로부터 고객 반응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추석 내수활성화 팔 걷은 삼성

협력사 대금 1.1조 조기 집행  
 자매마을 '온라인장터' 운영  
 계열사 직원 20만명 구매장려

삼성이 추석을 맞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고, 1조1000억 원 규모의 협력회사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은 9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19개 전 계열사 임직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자매마을 등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과 올 설 명절까지는 각 계열사의 자매마을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판매를 지원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장터를 마련했다.

삼성은 이번 온라인 장터 운영 기간을 기존 1~2주에서 4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온라인 장터에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한 27개 중소기업의 상품도 입점시켰다.

임직원들은 온라인 장터에서 자매마을의 농수산물 이외에 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된 어묵이나 황태, 두부 과자 등도 구매할 수 있게 돼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제조현장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 혁신 △시스템 구축 △자동화 등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

하는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펼쳐 왔다. 온라인 장터 참가업체 중 황태 가공 업체의 경우는 스마트공장 전환을 통해 생산성이 300% 이상 향상됐다. 두부 과자 제조 기업은 생산성이 약 150% 개선됐다.

삼성은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통한 '생산성 혁신'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장터를 통해서 '판매 지원'에도 나선 것이다. 이 밖에도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에서는 강원도 해담마을의 표고버섯, 충북敦輪 울경이마을의 과일·육수, 전남 담양 도래수마을의 꿀 세트 등 각 계열사 자매마을에서 생산한 특산품이 판매된다.

삼성은 협력회사의 자금난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운영을 돕기 위해 1조1000억 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추석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물품 대금 조기 지급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삼성웰스토리 등 10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회사별로 애초 지급일보다 6~7일씩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협력회사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물품 대금을 매달 4번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제일기획 등 계열사들도 월 3~8회씩 지급하고 있다.

한편, 삼성은 2018년 18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이래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송영록 기자 syr@

## 디스플레이 업계, 화웨이에 스마트폰 패널 공급 중단

美 제재 여파...구동 반도체 못써  
 삼성·LG 공급량 적어 영향 미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중국 화웨이에 패널 공급을 중단했다.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많지 않아 악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가 발효되는 오는 15일부터 화웨이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패널 공급을 중단한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칩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화웨이 패널 공급도 끊기게 됐다. 미국은 화웨이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국 기술이 적용된 부품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업계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화웨이향 물량이 많지 않고,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양사가 제품을 공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는 화웨이 물량이 많지 않아 화웨이 제재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바이탈뷰티 명작수  
 건강기능식품  
 600g (20개 x 30연봉)

건강한 일상이 소중한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바이탈뷰티 명작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 중기부, NHN·KT와 'AI 제조 플랫폼' 만든다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최종 선정...2022년 상반기까지 구축  
"中企,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 수준 AI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세계 최초로 민간이 협력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제조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AI 제조 플랫폼 구축에 협력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로 NHN과 KT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9일 AI 제조 플랫폼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AI 중소벤처 제조 플랫폼(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공모는 8월 13일까지 진행됐고, 더존비즈온-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NHN-KT, 스텔라-베스핀글로벌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최종 컨소시엄으로 NHN-KT가 선정됐다.

정부는 앞서 7월 23일 '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에서 AI

제조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공모는 그 첫 단계였다. NHN 컨소시엄은 NHN과 KT가 보유한 대규모 인프라와 안정적인 운영 능력에 더해 다양한 AI 플랫폼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한다는 면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는 AI 제조 플랫폼의 대용량 스토리지, 고성능컴퓨팅 자원 등 핵심 인프라와 AI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등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 보안과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카이스트 등 전문가와 협업체 클라우드 기반 AI 스마트공장을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KAMP를 통해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 수준의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AI 스마트공장화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제조 플랫폼 구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것"이라며 "마이제조데이터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제조데이터는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고 있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중기부는 마이제조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3단계로 세웠다. 먼저 올해 하반기까지 중소 제조기업이 제조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원활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설비·공정상 문제를 AI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AI 표준모델 50개를 구축·개방하고 현장 적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을 지원한다. 뿌리업계의 AI 활용 요구와 산업 파급 효과를 고려해 금형, 주조 등 뿌리 분야 중심으로 10개를 우선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조기업이 다양한 AI 제조 솔루션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스토어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솔루션 스토어가 구축되면 제조기업 스스로 스토어를 검색해 원하는 솔루션을 구입할 수 있다. 동시에 솔루션 스토어에 구비되지 않은 솔루션은 KAMP상에서 공급업체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2022년 상반기부터는 제조데이터 생산 기업과 활용기업을 매칭하고 거래를 지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조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제조데이터공유규범(MDSR)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조데이터의 생산자, 거래자, 유통자 등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 양질의 제조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중기부는 AI와 데이터 기반의 제조플랫폼을 민간이 협력해 구축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 유통, 의료 등 타 분야 데이터 산업은 해외 거대 플랫폼이 선점하고 있고, 미국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일 지멘스와 협력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조산업용 사물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AI와 데이터 기반의 제조 플랫폼, 즉 KAMP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민간 협력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좁아진 취업문 뚫자"...코딩 배우는 취준생

'디지털 직무' 채용 확대에  
코딩·웹개발 온라인 강좌 인기  
코드스테이츠·클래스101 등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특수'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A씨(28)는 최근 온라인으로 SQL과 파이썬 등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 강의를 듣고 있다. 전공했던 분야와는 영 다르지만, 'IT 역량'을 중시하는 취업시장 분위기에 발을 맞추고자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얼마 없는 채용 기업 중 대부분이 지원자의 IT 관련 이해도가 높길 바란다"며 "당장의 취업뿐만 아니라 향후 산업 지형 변화에도 대응하려면 IT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추가로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발자를 포함한 IT 인력 채용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수업을 수강해 커리어를 키우려는 취업준비생(취준생) 등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온라인으로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도 다양한 교육 과정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9일 IT 인재 양성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에 따르면 올 상반기 취업 연계 심화 코스에 지원한 사람은 총 1500명이다. 전년 대비 7.5배가량 늘어난 인원

이다. 취준생들이 집중하는 분야도 '개발'에 한정되는 대신 다양해지고 있다. 코드스테이츠는 7~8월 두 달 간 데이터사이언스,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프론트엔지니어링 세 개 분야에서 신규 코스가 개설됐고 여기에 1250명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렸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현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과 체계적 교육을 받는 '부트캠프' 과정에 최종 합류한 인원은 98명에 달한다.

'커리어' 클래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클래스101 관계자는 "코딩·웹개발 등 전문적인 직무 관련 클래스가 꽤 인기가 좋고 클래스 오픈 요청도 많다"며 "아무래도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워지면 온라인 교육이 늘고 있어, 커리어 쪽 클래스들에 대한 수요가 최근 3개월 간

전체적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채용문을 걸어 잠근 가운데, 디지털 관련 직무에선 채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인크루트가 5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트렌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 채용을 예년보다 확대하기로 한 곳은 36.8%에 달했다.

실제 네이버는 오는 18일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접수를 받고 있다. 채용 규모도 200명으로 크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도 개발자 채용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메쉬코리아(부릉), 토스혁신준비법인(토스뱅크) 등이 경력 개발자를 채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강의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어진 클래스101 커리어 리드는 "회사는 원데이 클래스 정도의 가볍게 수강할 수 있는 클래스부터 취업연계가 가능한 심화 코스 과정까지 시대 상황과 트렌드에 맞춰 다양하게 직무 시장 관련 클래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다원 기자 leadw@



LG U+ 'U+로밍 제도' 신규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 제공량과 이용기간만큼 해외 로밍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U+로밍 제도' 신규 요금제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요금제는 △최대 60일간 하루 1333원으로 이용 가능한 '제로 라이트 10GB' △로밍 이용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제로 +12시간' △기본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 추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 라이트 데이터 충전 1GB' 등 3종이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 KT, 언택트 교육시장 본격 진출

'스마트러닝 1위' 시공그룹과 MOU... "K-에듀테크 선도"

KT가 스마트러닝 업계 1위 시공그룹과 손잡고 비대면 교육 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사업 협력이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KT는 시공그룹의 교육 계열사 '아이스크림미디어', '아이스크림에듀', '피디엠(아이스크림키즈)' 3사와 함께 유치원생 및 초·중등학생 대상 홈스쿨링 서비스 공동 개발에 나선다.

세부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차별화 서비스 기획 및 콘텐츠 공동 제작 △학교 및 교육기관 대상 양방향 교육 솔루션 협력 △글로벌 시장 진출 통한 'K-에듀테크' 선도 △교육 관련 사회공헌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KT는 통신상품과 아이스크림에듀의 초·중등 교육 서비스 'AI홈런'을 결합한 'KT AI홈런(가칭)'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출시 이후 고객들은 전국 KT 대리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고 가입할 수 있다.

올레 tv 키즈랜드에서 유아 대상 '리틀홈런', '누리놀이' 등 시공그룹이 보유한 양질의 홈러닝 콘텐츠를 체험하는 것도 연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KT



강국현(오른쪽) KT 커스터머부문장 부사장과 박기서 시공그룹 회장이 협약서를 들어보고 있다.

가가지니의 AI 기술이 적용된 'AI홈런' 서비스도 올레 tv에서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2학기부터 서울시 교육청 산하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무상 제공한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부사장)은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KT의 ICT 기술력과 플랫폼을 활용해 차별화된 홈스쿨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K-에듀테크 사업 강화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한컴, 우주·드론 전문기업 '인스페이스' 인수

항공우주분야 사업 확대

한컴컴퓨터그룹은 우주·드론 전문기업 '인스페이스'를 인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컴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과 항공우주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컴그룹이 인수한 '인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의 최명진 대표가 2012년 설립한 기업이다. 항공우주 위성

지상국 분야 기술 1위 기업이며 주로 위성 지상국 구축 및 운영, 인공지능 기반의 위성·드론 영상 분석에서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드론 자동이착륙, 무선충전, 다중운영, 통신데이터 수집·관계 분석 등 기술을 통합한 무인 자동화 시스템 '드론셋'을 개발해 드론 소프트웨어까지 사업영역을 넓혔다. '드론셋'은 AI 기술을 접목한 객체 탐지·분류·판독 모듈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적용 가능한 분야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컴그룹은 '인스페이스'의 드론셋 기술을 기반으로 IoT,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다양한 요소기술들을 융합해 지자체 및 정부의 스마트시티 구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다.

한컴그룹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은 기체 중심에서 활용서비스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며 "인스페이스의 항공드론 관련 SW 기술들과 한컴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 사업경험, 네트워크, 브랜드 파워 등과 결합된다면 충분히 국내 드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카페·레스토랑·호텔까지 취업... 활동영역 넓힌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도입 늘어  
TGI 서빙 로봇 '페니' 운영  
노브랜드 버거, 빵·패티 자동조리  
배달 로봇 '딜리' 호텔 룸서비스

## 주요 외식브랜드 키오스크 및 로봇 도입 현황

롯데리아	키오스크 전 매장 80% 도입 완료
TGI, 빌라드샬롯 잠실점	서빙로봇 '페니' 운영
달콤	비트 로봇카페 대학가 6개 매장 포함 30개 매장 운영
엘리웨이광고	배달의민족 개발 배달로봇 '딜리' 도입
H AVENUE 건대점	배달의민족 개발 배달로봇 '딜리' 룸서비스 시작
BBQ 헬리오시티점	서빙 로봇 도입
노브랜드버거 역삼점	키오스크·서빙 로봇 도입



호텔의 룸서비스를 로봇이 하고 로봇바리스타가 만들어준 커피를 마신다. 레스토랑에서는 서빙 직원 대신 서빙로봇이 주문을 받고 메뉴를 가져다 준다.

가상 현실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로봇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주문이 가능한 식당도 점차 늘고 있다.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주문을 받는 직원이 따로 필요 없어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로봇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소핑몰, 호텔까지 로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롯데GRS는 현재 TGI 일부점포와 지중해식 레스토랑 빌라드샬롯 잠실점에서는 서빙로봇 '페니'를 운영 중이다. 직원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페니에 올려놓고 테이블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고객이는 테이블로 서빙해준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롯데리아의 무인 키오스크 운영점은 올해 8월까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현재 롯데리아의 키오스크 도입 점포는 전체 매장의 80%에 이른다.

롯데GRS 관계자는 "롯데리아의 경우 키오스크와 주문을 받는 직원을 동시에 배치한 매장이 많지만 최근 들어 주문은 모두 키오스크를 통해서만 받는 무인 키오스크 매장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외식브랜드 통합멤버십인 '롯데이츠'를 통한 주문이 늘어나는 등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는 선택이 아닌 일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 역삼점도 번(빵), 패티가 무인으로 자동조리되는 동시에 서빙로봇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브랜드 버거 역삼점에서는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주문하고 픽업 존에서 기다리면 서빙 로봇이 전달해주는 음식을 주문번호와 음성 안내를 통해 확인한 후 픽업하면 되는 완전 무인시스템을 구축했다.

달콤의 로봇카페 '비트'도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비트는 복합소핑몰, 휴게소는 물론 대학교와 아파트단지까지 속속 입점하며 어느새 20호점을 돌파했다. 비트는 주문부터 픽업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무인서비스로 제공하는 카페다. 비트는 전용 앱과 키오스크, 모바일 기반의 음성 등 100% 비대면 주문 결제로 운영되며, 원두선택과 시럽 양, 진하기 조절 등 취향에 따른 주문도 가능하다. 단순히 커피를 만들고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AI기능이 탑재된 비트는 고객에게 인사말까지 건넬 만큼 똑똑하다.

배달의민족이 개발한 배달로봇 '딜리' 역시 소핑몰과 호텔로 취업(?)에 성공했다. 서울 화양동에 위치한 호텔 H AVENUE 건대점은 '딜리타워'를 도입하고 '로봇배달 룸서비스'를 시작했다.

로봇배달 룸서비스는 객실에 비치된 QR코드를 배민 앱으로 스캔하면 주문할

수 있는 용품이나 음식료 등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배민 앱으로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딜리가 문 앞까지 주문한 제품을 가져다 준다. 객실 문 앞에 도착한 딜리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문앞에 도착한 것을 알려준다. 배민은 한화건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내년 국내 최초 아파트 중간 이동 배달 로봇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복합소핑몰인 엘리웨이 광고에 등장한 딜리는 실내가 아닌 실외를 누닌다. 딜리의 야외 버전으로 '딜리 드라이브'로 명명된 이 로봇은 식당에서 음식을 수령해 실외 주행용 통째로 야외 광장과 아파트 등 주거단지 고객에게 배달해준다.

배달로봇 서비스는 엘리웨이 광고의 중앙 광장인 '헬로그라운드'를 방문한 고객과 아파트 단지인 광고 아이파크 입주주민이라면 누구나 배달시킬 수 있다.

치킨프랜차이즈 BBQ도 헬리오시티점을 오픈하며 서빙로봇을 도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위드 코로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로봇'의 활용범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이 되면서 백화점, 마트에서 안내 직원 대신 로봇을 도입하거나 인포메이션 데스크의 무인화도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2109@

## 이커머스, 추석선물 물량 증무장

언택트 바람 타고 시장 주도권 잡기 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면서 추석선물 수요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커머스가 역대급 물량으로 무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소비 여세를 몰아 추석 선물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 아래 각 업체들이 선물세트를 대폭 늘리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이번 추석에 기존 명절 선물세트 판매 대비 할인 혜택을 최대로 높였고, 판매 상품 수 역시 최대 규모로 구성했다. 지난해 추석 선물 세트 1만 종을 내놨던 SSG닷컴은 올해 설에 1만 2000종, 이번 추석에는 2만 5000종으로 품목 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는 추석 사전예약 품목 수보다도 9000여 종 확대한 것이다.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SSG닷컴의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이상 신장했다.

본 판매에서는 SSG닷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기프트 브랜드 '정답' 상품과 온라인스토어 네오(NE.O) 전용 상품을 포함해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판매 동일 상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사과배합세트(사과 6입, 배 6입)'와 '미식생활 한우 1++ 등급 정육세트(1.8kg)' 등 신선식품에 힘을 줬다.

14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2020 한가위 빅세일'에 들어가는 G마켓과 옥션도 행사기간 내내 파격적인 할인율의 쿠폰을 매일 제공하고, 특가 상품으로 구성된 '추석특가 딜'을 한정수량으로 내놓으며 고객을 유혹한다. 이 업체 역시 코로나19로 비

## SSG닷컴 명절 선물세트 (단위: 종)



## SSG닷컴, 선물 품목 작년 2배 G마켓·옥션 '특가딜' 파격세일 쿠팡 '선물하기' 기능 추가

대면 소핑으로 추석을 준비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행사 물량을 명절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

쿠팡은 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2020 추석' 기획전 기간 동안 로켓프레시 추석 선물 배송에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사전예약 특가로 13일까지 영양제와 식품, 헤어바디 선물세트를, 22일까지는 프리미엄 전복, 한우, 굴비, 과일 등의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최대 54%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사전예약 기간 내 구매 고객은 14일과 추석 연휴 전인 25일, 27일, 28일 오전 7시까지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새벽배송으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11번가는 12일부터 25일까지 '추석 특선(특별히 엄선한 특별한 선물)' 프로모션을 열고 장마와 태풍,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물가가 높아졌지만 고객들이 가성비 좋은 명절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매일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11번가가 특별히 엄선한 상품들을 마련한다.   
남주현 기자 jooh@



김연자와 '아몬드 파티'

이마트가 길림양행, 가수 김연자와 손잡고 아몬드, 땅콩 등으로 구성된 믹스넛 '아몬드 파티'를 10일 단독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아몬드 파티'는 고객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 인기 트루트 '아모르 파티(Amor Fati)'에서 이름을 따왔다. 또, 아모르 파티를 부른 가수 김연자를 모델로 기용했다. 이마트는 '아몬드 파티' 상품 출시를 기념해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정상이 1만 2980원에서 신세계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3000원 할인된 9980원에 판매한다.   
사천제공 이마트

## CJ 오쇼핑, 온 가족 건강 챙긴다

어린이 성장 돕는 '잘크톤업' 론칭  
흡트족 위한 '중근당건강 머슬파워'

"유아동부터 흡트족, 시니어까지 사로잡겠다."

CJ ENM 오쇼핑부문이 건강식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상품을 9월 한 달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TV홈쇼핑에서 주력 판매하던 시니어 맞춤형 상품을 넘어 흡트레이닝족, 유아동

위한 상품까지 론칭하며 고객 지면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건강 관리 및 면역력 강화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전 연령대에서 높아진 점을 빠르게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1000명 중 78.2%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강기능식품을 평소보다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오전 11시 35분에는 어린이의 균

형 잡힌 성장을 도와주는 '잘크톤업'을 TV홈쇼핑 최초로 론칭한다. 이 제품은 조아제약 영양 음료 베스트셀러이자 누적 판매 250만병 기록한 '잘크톤'의 시리즈 제품이다.

헬스장을 방문하기 어려워 흡트레이닝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상품도 준비했다. 13일 오전 7시 50분 1일 1포 섭취로 근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중근당건강 머슬파워'를 론칭한다. 100% 식물성 원료이자 국내 유일 식약처에서 근력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오미자추출물'이 함유돼 무릎을 밀 때 사용되는 대퇴사두근과 약력의 유익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GS25·CU, 몽골서 정면 대결

CU, 2018년 진출해 입지 구축  
GS25, 내년 상반기 1호점 오픈  
'젊은 국가' 편의점 사업 성장성 커

토종 편의점 라이벌인 GS25와 CU가 몽골로 무대를 옮겨 정면 대결을 펼친다. 2018년 편의점 업계 최초로 몽골에 진출하며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CU에 GS25가 도전장을 던졌다.

GS25는 몽골 손볼라이 그룹과 8일 몽골 내 GS25 편의점을 전개하는 내용의 계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내년 상반기 중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GS25 1호점을 시작으로 첫해 50개 점을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제휴 형태는 GS리테일이 로열티를 받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이다.

현지 파트너인 손볼라이 그룹은 몽골 내 주요 산업 별로 굵직한 12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재계 2위 그룹이다.

베트남에서 지난해 기준 7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GS25는 몽골로 사업 확장

에 나섰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사업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국내에 안주할 수 없다고 판단,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GS25는 베트남에서의 성공과 몽골 시장 진출을 발판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세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GS25는 몽골과 베트남에서 우리동네딜리버리, 반값택배 등 한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플랫폼을 현지에서 맞는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다.

몽골은 인구가 약 300만 명에 불과한 비교적 작은 시장이지만 40대 이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는 '젊은 국가'다. 편의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주축이기에 편의점 사업 성장성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GS25가 몽골 진출을 결정하면서 이 시장에서 CU와의 정면 승부는 불가피하게 됐다. CU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베트남 진출을 잠정 중단하며 몽골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국산 코로나 치료제, 연말 출격 '젠걸음'

## '32조 시장' 잭팟 주인공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올 연말 본격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셀트리온과 GC녹십자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임상에 진입한 다수 기업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월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와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가 각각 올해 말부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확산세와 위급함을 고려해 임상 3상을 완료하기 전에 환자들에게 쓰이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이달부터 인천 송도 공장에서 항체치료제 'CT-P59'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임상 진행과 제품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CT-P59는 지난 7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 내 임상 1상 승인을 받은 후 투약을 완료,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에 대한 임상 1상은 8월 25일부터 착수했으며, 이미 2/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한 상태다.

셀트리온은 9월 말부터 임상 2/3상에 돌입해 연말까지 중간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타진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 신속히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지난 7일 "임상 2상 결과 안전성이 탁월하면 연말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언급, 항체치료제의 연내 사용 의지를 강조했다.

송도 공장은 셀트리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다. 1공장과 2공장을 더해 총 19만 리터 규모로, '렘시마' 등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풀가동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기존 제품의 재고량 등을 고려해 생산 계획을 조절,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생산 여력을 확보했다. CT-P59의

##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현황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사	약물	임상 단계	승인일	현황	특징
부광약품	레보비르	2상	4월 14일	모집 중	약물재창출
엔지켐생명과학	EC-18	2상	5월 12일	모집 중	
신풍제약	피라맥스	2상	5월 13일	모집 중	
종근당	CKD-314	2상	6월 17일	승인 완료	
크리스탈지노믹스	CG-CAM20	2상	7월 1일	승인 완료	
대웅제약	DW1248	2상	7월 6일	승인 완료	
셀트리온	CT-P59	1상 1상(경증환자)	7월 17일 8월 25일	모집 완료 모집 중	항체치료제
제넥신	GX-17	1b상	8월 7일	승인 완료	면역증강제
GC녹십자	GC5131	2a상	8월 20일	승인 완료	혈장치료제

## 셀트리온, 긴급사용승인 염두

## 제품 생산·임상 투트랙 진행

## 녹십자, 개발 속도 조금 앞서

## 정부도 연내 치료제 사용 공언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모습.

사용승인을 10배치(batch·바이오의약품 배양하고 정제하는 전체 공정 단위) 이상 생산해 사용 승인을 획득하는 즉시 국내에 대량 공급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임상을 통해 항체치료제의 최종 용량과 투약 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며 "정확한 생산량은 임상이 진행될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실제 신약 허가 승인을 위해서는 임상 3상까지 마쳐야 한다. 셀트리온은 늦어도 내년 5월까지 이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임상과 함께 글로벌 임상도 진행 중으로, 영국에서 임상 1상을 승인받고 유럽 내 2/3상을 준비하고 있다.

개발 속도 면에서 좀 더 빠른 것은 혈장

## 주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일정

###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 출처: 각사

3월 12일	항체치료제 개발 계획 발표
4월 13일	최종 항체 후보군 확정
6월 1일	동물시험에서 효과 확인
7월 17일	식약처, 임상 1상 승인
8월 25일	환자 대상 임상 1상 승인
9월(예정)	항체치료제 본격 생산, 임상 2·3상 진입
12월(예정)	임상 2/3상 중간결과 확보 및 긴급사용승인 신청
내년 5월(예정)	임상 3상 완료

### GC녹십자 혈장치료제

4월 2일	혈장치료제 개발 계획 발표
5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 혈장 수집 시작
7월 18일	임상시험용 제품 생산 개시
8월 20일	식약처, 임상 2상 승인
9월 8일	임상시험용 2차 생산 개시
10월(예정)	2차 생산분 공급 완료
12월(예정)	임상 2상 결과 확보 및 치료 목적 사용승인

치료제다.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 'GC5131A'는 임상 1상을 면제받고 8월 20일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 회사는 7월 중순부터 임상시험용 제품 생산에 돌입해 1차 생산을 일찌감치 완료했으며, 전날부터 2차 생산에 들어갔다. GC5131A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다양한 항체가 들어 있는 면역 단백질을 분해해 만든 고면역글로불린(Hyperimmune globulin)이다. 고면역글로불린은 오랜 기간 인체에 사용돼 온 제제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다.

GC녹십자는 연말까지 임상 2상의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치료목적 사용승인이 허가될 수 있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요청으로 정식 상용화가 되기 전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미 연내 혈장치료제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공언한 바 있다.

2차 생산 물량은 1차에 비해 4배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 2상이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2차 생산을 통해 약 240회 투약할 분량을 확보하는 셈이다.

혈장치료제 1회 투여분을 생산하려면 통상적으로 확진자 2~3인의 혈장 공여가 필요하다. 지난 4일 기준 코로나19 완치자 2634명이 혈장 공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 가운데 1936명의 재혈이 완료됐다.

GC녹십자 관계자는 "2차 추가생산 분량은 주로 의료현장의 치료목적 사용에 투입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혈장 공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과 GC녹십자 외에도 부광약품과 제넥신 등 7개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았다. 약물 재창출 전략으로 임상 2상에 바로 진입한 곳은 부광약품, 엔지켐생명과학, 신풍제약,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대웅제약 6곳으로, 이 가운데 3곳이 환자 투약을 개시했다.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임상도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제넥신은 8월 7일 'GX-17'의 임상 1상에 착수했으며, 중증 환자에 대한 고무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치료제 선점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트투자증권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전 세계적 가치를 32조4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국내 시장이 약 6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신종플루 팬데믹 상황에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다미플루'는 2009년에만 33억 달러(3조92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 한미약품 당뇨약 사노피, 임상중단

## '퀀텀 프로젝트' 모두 반환

사노피가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당뇨치료제 임상 개발을 결국 중단했다. 한미약품은 다른 대사업할 적응증으로 개발을 이어가고, 신규 파트너사를 찾을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8일(현지시간)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 반환을 확정하고 이를 각 임상 사이트에 통지했다고 9일 공시했다.

지난 5월 13일 사노피가 반환 의사를 한미약품에 통보한 이후 양사는 약 120일에 걸친 협의를 거쳤으나 권리 반환이 최종 확정됐다. 한미약품이 받은 계약금 2억 유로(약 2643억 원)는 반환하지 않는다.

에페글레나타이드 임상 3상은 30여개국, 300여개 임상센터에서 6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돼 왔다.

사노피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 중단 사유로 주요 사업전략 변경에 따른 결과란 점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 의료계가 흔들려 수천명 대상의 동시다발적 임상을 기한 내 진행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었다.

앞서 사노피는 지난해 12월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판매를 담당할 파트너사를 따로 찾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상 3상까지만 완수하고 신약허가신청 등 이후의 상업화 절차는 다른 회사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상 3상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5월 한미약품에 권리 반환 의향을 통보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까지 반환되면서 한미약품이 2015년 11월 사노피에 기술수출했던 '퀀텀프로젝트'는 모두 되돌아왔다. 퀀텀프로젝트는 총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기술수출 계약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가 포함됐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로 당뇨를 제외한 다양한 대사질환 증후군 치료 분야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다른 적응증 탐색, 랩스커버리 기반 바이오신약 후보물질들과 병용 연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사노피가 아닌 새로운 파트너사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노피가 진행하던 5건의 임상 3상 자료를 모두 넘겨받고, 그 가운데 10월 완료되는 1건은 직접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과거 안센이 기술도입해 당뇨치료제로 개발하던 한미약품의 'LAPSGLP/GCG 듀얼 아교니스트'가 최근 새 파트너사 MSD에 기술수출돼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치료제란 신규 적응증으로 개발되는 혁신 사례가 있는 만큼, 에페글레나타이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 코로나 키트, 독감 동시진단으로 재도약 준비

## 계절독감과 감별 중요성 커져

## 3분기 '옥석 가리기' 본격화

## 씨젠·코젠바이오텍 등 개발

## 내수보다 수출 허가에 주력

2분기 정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받던 진단키트 시장이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키트로 실적 반등을 꾀할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와 겨울철 유행하는 독감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비슷해 구분이 쉽지 않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증상을 지닌 사람들이 선별진료소에 몰리면 진단과 치료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의료·방역체계에 부담이 커질까 우려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의심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감별하는 것이 이번 가을 철 코로나19 방역 대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9월 업계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키트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회사는 씨젠, 코젠바이오텍, 엔디포스, 젠바디, 바디텍메드, 나노엔텍, 피

##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키트 현황

업체명	진행 상황
씨젠	유럽 판매허가 심사
코젠바이오텍	9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젠바디	7월 수출허가 승인
바디텍메드	수출 승인 절차 진행
엔디포스	수출 승인 절차 진행
나노엔텍	수출 승인 절차 진행
피씨엘	개발 중

씨엘 등이다. 이들 업체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허가 승인에 열을 올리는 한편 국내에선 이달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절차를 준비 중이다.

가장 먼저 국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곳은 유전자 분석 전문업체 '코젠바이오텍'이다. 식약처는 지난 7일 코젠바이오텍이 신청한 코로나19와 독감 2종을 동시에 진단하는 키트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이 키트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코로나19 감염의 심 환자의 상기도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 증폭(RT-PCR) 분자진단 장비로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2개 제조업체 3개 제품이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을 신청했고, 그중 하나가 코젠바이오텍이다. 식

약처 측은 "현재 체외 진단시약임상시험을 거쳐 신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키트를 개발한 업체는 국내 임상승인보다 수출허가를 받아 해외시장 진출을 꾀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승인 절차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해외 시장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임상승인보다 수출허가를 우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겹친 만큼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제품 수요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제품('Allplex SARS-CoV/FluA/FluB/RSV Assay')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품은 한 번의 검사로 △코로나19 바이러스(N, RdRP, S 3종 유전자) △인플루엔자 A, B형 독감 △영유아부터 전 연령층에 걸쳐 감기와 중증 모세 기관지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A, B형 등 5종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다. 씨젠 관계자는 "현재 유럽에 판매허가를 신청해 심사 중이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디텍메드는 지난달 한 번의 검체 채취로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판별할 수 있는 'Flu SC2 멀티 PCR(유전자 증폭) 검사키트'를 개발했다. 이 진단키트는 동결건조 방식으로 생산돼 상온 배송 및 보관이 편리한 것이 특징이다. 또 PCR 검사 용기에 시약을 담은 형태로 제공해 환자에게 채취한 샘플만 넣어주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하고 오류 가능성이 적다. 회사 관계자는 "9월 안에 수출허가를 받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키트가 3분기 실적 반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5, 6, 7월 매출 진단키트 수출금액은 전월 대비 감소하면서 7월 수출액이 고점이던 4월보다 49% 수준까지 떨어져 진단키트에 대한 거품이 빠지고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라며 "다만 8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 기존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시즌이 겹치면서 다들 2분기가 진단키트의 고점이었다고 생각했지만, 3분기 수출금액은 2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선 기자 only@

<3일 연속 상승>

# 카카오게임즈 오늘 상장... '따상' 찍고 '3연상' 갈까

**카카오게임즈 공모 후 주주구성**

카카오	46.08%
넷마블	4.4%
ACEVILLE PTE. LTD. (Tencent)	4.4%
남궁훈	3.3%
케이큐브홀딩스	1.02%
스마일게이트	0.9%
크라프트	0.88%
엑트즈소프트	0.88%
공모물량	21.86%
기타	16.28%

\* 출처: SK증권



시초가, 공모가 2배 오를 경우  
투자자 주당 2만4000원 차익  
상한가 기록 땀 3만8400원

증거금 59兆...SK바이오팜 2배  
전문가들 "흥행 가능성 크다"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1524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쓴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 시장에 10일 입성한다. 상장 첫날 SK바이오팜처럼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 오른 후 상한가 기록)' 성공에 이어 '3연상(3거래일 연속 상한가)'까지도 가능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

는 10일 오전 9시 증시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한다. 시초가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수-매도호가 합치되는 가격에서 결정된다.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는 2만4000원으로, 시초가는 2만1600원~4만8000원에서 결정된다.

'따상'을 기록했던 SK바이오팜은 7월 상장 첫날 공모가(4만9000원)의 두 배인 9만9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곧바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카카오게임즈는 SK바이오팜(31조 원)의 약 두 배에 달하는 58조 5000억 원의 증거금이 모인 만큼 흥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게임즈의 적정 기업가치는 2조2000억 원

으로 이는 2021년 예상 지배주주순이익 1098억 원에 목표 배수 20배를 적용한 것"이라며 "확정된 공모가액 기준 시가총액 1조7600억 원 대비 25% 수준의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진만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시장 분위기와 상장 초기 종목 변동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상장 첫날 공모가를 크게 상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카카오게임즈가 공모가의 200%인 4만 8000원으로 장을 시작할 경우 공모주 투자자는 주당 2만4000원의 차익을 본다. 이후 상한가(6만2400원)를 기록하면 주당 차익은 3만8400원이 돼 공모가 대비 160%의 수익률을 올리게 된다.

실제 9일 장외시장에서도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듯 카카오게임즈의 장외주식은

고공 행진했다. 매수호기는 13만 원까지 등장했다. 공모가(2만4000원)의 5배가 넘는 가격에 사겠다는 투자자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등을 고려하면 급격한 주가 상승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민아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3만3000원 정도가 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엘리온 등 신작들의 흥행 성과가 가정치를 넘어선다면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상장해 '따상'을 기록한 종목은 SK바이오팜 외에도 6월 상장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장비 업체인 엘이티와 7월 상장한 2차전지 제조업체 에이프로가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테슬라 급락... 1.9兆 담은 '서학개미' 악몽

상반기 이어 하반기도 국내투자자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50억 달러 유증 계획·S&P500 편입 실패 등 악재에 내림세  
전문가들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질 가능성... 신규 투자 주의"

"테슬라는 월가에서 가장 위험한 주식이다. 펀더멘털이 높은 주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데이비드 트레이너 뉴컨스트럭트 최고경영자(CEO))

테슬라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위험한 주식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지만 '도박 게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테슬라 주식을 장바구니에 쓸어담고 있다. 불나방처럼 덩어리는 개미들에 대한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다.

관련 원정 개미들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의 답은 '글썩'였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로 15억6424만 달러(1조8594억 원)를 순매수했다.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도 테슬라는 순매수액 4억7011만 달러(5588억 원)로 1위를 차지하면서 두 달여 만에 상

반기 순매수액을 넘어섰다.

테슬라 주식 순매수액은 7월에 7억 6149만 달러(9052억 원), 8월(3억1398만 달러)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달 들어 4억8905만 달러(5813억 원)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테슬라는 주식 1주를 5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결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조정 가격에 거래를 개시했다. 이에 액면분할 전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껴 투자를 망설이던 국내 투자자들도 액면분할 후 대거 테슬라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액면분할 첫날 테슬라는 12.6% 상승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1일(현지시간) 최대 50억 달러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며 주가는 4.67% 하락했다. 2일에는 테슬라 2대 주주의 보유 지분을 하락 소식에 내림세를 이어갔다. 4일에는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편입

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간의 거래에서 400달러 선이 무너졌다.

주말과 노동절 휴일을 보내고 열린 8일 장에서 테슬라는 21.1% 폭락한 330.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하루 낙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이에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거품론'을 지적하며 경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주식투자연구소 뉴컨스트럭트의 데이비드 트레이너 최고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주당 500달러가 아닌 50달러에 가깝다"며 "앞으로 10년 내 일본 도요타처럼 고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여전히 거품이 끼여있다"고 지적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 그동안 기업과 경기 펀더멘털 등을 신경 쓰지 않고 자산을 매수하는 '더 위대한 바보 이론(Greater fool game)'에 기반을 뒀던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최근 미국 증시 급락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펀더멘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차익 매물 출회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해 신규 투자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GKL 사외이사 후보자 현황

후보자	주된 직업	기간	세부 경력 내용
신강현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1998.2~현재 1990.9~1996.2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밀레니엄 서울 힐튼 판촉부 과장
이계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 소통관	2018.7~2020.6 2014.12~2018.6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소통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기획관
이명환	IBS컨설팅 대표이사	2010.~현재 2019.10~현재	IBS컨설팅 대표이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이수범	경희대학교 Hospitality 경영학부 교수	2001.3~현재 2020.3~현재	경희대학교 Hospitality 경영학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관광분과 위원장
한희경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2016.12~2018.8 2008.9~2010.5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GKL, 또 '낙하산 사외이사' 논란

전문성 부족한 與 여성위 부위원장 출신까지 후보에  
행안부 자문위원 등 현 정권과 밀접한 인물도 선정

사외이사 선임을 앞둔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 또 다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KL은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5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 후보자는 신강현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이계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 소통관, 이명환 IBS컨설팅 대표이사, 이수범 경희대학교 Hospitality 경영학부 교수, 한희경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이들 중 낙하산 지적이 제기되는 후보자가 한 전 부위원장이자. 회사 측은 한 전 부위원장이 "전라북도의회로서 지역 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했으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아이디어로 변화 및 혁신, 소통에

한 의견제시가 가능한 후보자"라고 추천 사유를 밝혔으나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제기된다.

또 이 대표이사와의 교수의 경우에는 전문성은 갖췄으나 현 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이 교수는 강원랜드 자문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관광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5년 설립된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51%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다 보니 낙하산 인사가 잇따랐다. 이기우 전 사장까지 5명의 사장이 모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다. GKL 등기임원은 지난해 1인당 평균 1억1900만 원가량의 보수를, 사외이사는 2400만 원의 보수를 챙겼다.

조남호 기자 spdran@

## 그린뉴딜·니콜라 '훈풍'... 한화솔루션, 그룹 대장주 '우뚛'

주가 올 들어 163% '굉충'  
시총 한 달 새 3조 늘어

한화솔루션이 글로벌 그린뉴딜 정책 추진 영향과 니콜라 투자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룹 대장주로 우뚛 올라섰다.

9일 한화솔루션은 미국증시로 급락으로 인한 국내 증시의 하락 추세 속에서도 전일 대비 5.42% 오른 4만8650원에 마감했다. 이는 연초 주가(1만8500원) 대비 162.97%나 오른 것이다. 이날 한화솔루션의 주가는 전일 뉴욕증시에서 니콜라의 주가가 전날보다 40.79% 폭등한 영향으로 상승했다. 한화그룹은 니콜라 지분 6.1%를 한화에너지와 한화중합화학을 통해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한화중합화학의 지분 36.0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8월부터 니콜라 투자로 효과로 인한 실적 개선으로 주가 상승세를 이어오다 이달 들어서는 뉴딜정책 수혜

한화솔루션 주가 (단위: 원)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1일과 8일을 제외하고 6거래일 상승했다.

시가총액도 이날 증가기준 7조7774억 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약 3조 원 가량 상승했고, 연초 대비해서는 4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한화솔루션은 그룹의 시가총액을 책임지던 한화생명을 제치고 그룹 대장주로 올라섰다

한화솔루션은 케미칼, 태양광, 첨단소재, 유통부문 등으로 사업이 구성돼 있다. 한때 철수설이 돌았던 태양광 사업은 가치 상승으로 주가 재평가를 이끌고 있으며,

최근에 뛰어난 수소사업은 주가의 추가적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석유화학(케미칼)까지 견조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에 증권가는 최근 주가 상승에도 한화솔루션의 기업가치가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재측정에 나섰다. △NH투자증권 5만1000원 △삼성증권 6만 원 △하나금융투자 4만 6000원 △대신증권 6만5000원 △흥국생명 6만6000원 등은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유럽의 그린 뉴딜 정책, 미국 대선 후보 바이든의 4년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2조 달러 투자공약 및 그린에너지를 확대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글로벌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에게 긍정적"이라며 "니콜라 제휴를 통한 수소사업 진출 역시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매출 비중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측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20년 9월 9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67,900	-5,000 (1.8%▼)	이오스	3,288	-62 (1.9%▼)
리플	285	-1 (0.3%▼)	비트코인골드	10,030	-110 (1.1%▼)
라이트코인	56,800	-1,200 (2.1%▼)	이더리움클래식	7,075	-140 (1.9%▼)
대시	91,200	400 (0.4%▲)	퀀텀	2,840	-105 (2.6%▼)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삼지땅’ 푸는 LH, 불붙은 세종 부동산시장에 기름붓나

‘행복도시 유보지 활용’ 용역 입찰 총 110만㎡...2022년 상반기 마무리 세종시 급성장에 개발 압력 커져 올 아파트값 34% 올라 과열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쟁여뒀던 세종시 토지 개발에 본격 나선다. 개발 예정 부지만 110만㎡가 넘는다.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을 지피는 상황에서 대형 개발 재료가 가득이나 불안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H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유보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LH가 세종시에 보유한 유보지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LH가 이번에 개발 계획을 세우려는 유보지 면적은 총 110만8000㎡다. 행복도시 면적(72.9km²)의 1% 수준이다. 각각 1-1생활권(33만5000㎡), S1생활권(51만8000㎡), S2생활권(20만5000㎡), 3-1생활권(5만㎡) 등에 걸쳐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엔 17.1km²가 개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유보지로 남아 있다. 세종시 면적 5분의 1에 맞먹는다. 도시 외곽은 물론 정부세종청사 인근 등 도심 곳곳도 아직 개발이 안된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유보지를 소유한 행복도시건설청과 LH 등은 세종시 규모가 커질 것을 대비해 개발을 미뤄왔다.

LH가 이번에 유보지 일부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세종시가 급성장하면서 개발 압력이 커지고 있어서다. 세종시 인구는 현재 약 3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명이량 늘었다. 전국 도시 가운데 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2030년까지 세종시 인구를

50만 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LH 측은 "도시 여건이 성숙해 대규모 유보지에 대해 장래 도시개발 수요 및 정책 등을 고려한 추진 전략을 수립해 선제적인 계획 방향 및 최적의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 대상인 네 지역은 행복도시 1단계 건설사업에 포함된 지역이어서 개발이 우선 추진됐다.

LH는 1-1생활권 등 4곳을 어떻게 개발할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했다. LH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등을 세우지 못했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개발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종시에선 시가지와 가

까운 1-1생활권과 S2 생활권은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길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LH는 용역 과정에서 주민 여론도 반영해 개발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 이목이 쏠리는 건 여권이 세종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을 옮기려는 와중에 이뤄지고 있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꾸리고 행정수도 이전 공론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미 세종엔 행복도시 설계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대비한 유보지가 보존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 추

진단도 이들 유보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2022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권이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국가기관을 세종으로 추가 이전하려 한다면 절묘하게 맞물리는 시점이다. 세종 곳곳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질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다. 행정수도 이전론이 재점화된 후 세종 부동산시장에도 불이 붙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올 들어 34% 올랐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5억178만 원으로 서울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세종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 원을 넘긴 건 지난해이 처음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 이 같은 기세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관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인근 부동산 가격이 들쭉날쭉하는 건 당연하다"며 "정부 등이 앞장서서 세종시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노후 아파트값 오르지않 규제 사정권 우려 '양날의 검' 된 리모델링 호재

송파 '성지아파트' 10개월새 4억 경증 노후단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촉각

리모델링 사업이 노후 아파트 집값을 끌어올리는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과도해지면 규제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는 수직증축(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려 짓는 것) 리모델링이 허용된 첫 단지이자 유일한 단지다. 안전성 문제로 수직증축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른 단지와 달리 튼튼한 지반 덕에 구청 허가까지 받았다. 현재 지상 15층에 298가구인 성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상 18층 34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올해 초 수직증축을 허가받은 후 성지아파트 매매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1월만 해도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10억 원 안팎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가 14억 원까지 올랐다. 리모델링을 마치면 새 아파트처럼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수직증축은 수평증축(기존 아파트 옆에 새 건물을 덧대 짓는 것)보다 가구 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어 분양 수익도 노릴 수 있다.

리모델링 추진 전후 시세 변화 (단위: 원)



수평증축을 추진하는 경기 안양시 호계동 목련 2단지도 리모델링 호재를 누리긴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건축심의를 통과했는데 전용 59㎡형 기준으로 시세가 7억 원을 웃돌고 있다. 5억 원대에도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던 연초와 비교하면 1억 원 넘게 집값이 올랐다.

다만 일각에선 리모델링으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자칫 규제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리모델링 역시 안전성 검증 등 정부와 지자체가 목줄을 쥐고 있는 건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직증축을 추진하는 단지에선 올 연말로 예정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긴장 섞인 눈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다. 서울시 등은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 공공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서울시, 연내 법개정 추진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자치구에서 시 전체로 넓히는 '공공기여금 광역화'에 나선다. 시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

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 채납받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선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다.

그간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권에 집중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 일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서다.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게 서울시 목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하이힐에 지친 여성의 발을 위한  
많이 걷는 발을 위한  
하루종일 서서 일한 발을 위한  
머뭇고 뽀샤시한 발을 위한  
쉽게 붓는 발을 위한  
신발 속에 하루종일 갇혀 있던 지친 발을 위한  
각질이 많은 발을 위한

### 세상에 없던 프리미엄 발 관리기 - 휴심 테라핏

# Thera Feet

컴팩트하고 감각적인 디자인,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고기능. 30년 고재 만족의 품질력, 휴심 테라핏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 진정한 휴식을 드립니다.

아랍비스토어 단독 100,000원 할인 100세트 선착순!

**기능도 프리미엄 스타일도 프리미엄 휴심 테라핏, 프리미엄한 휴식을 드립니다**

플라즈마 기능 탑재 휴심만의 독보적 기술을 담은 국내 최초 플라즈마 기능 발 마사지기  
초경량 양발 분리형 1.3kg 무게와 무초형 설계, 무선 방식으로 어느 장소, 어떤 자세로든 OK  
피부관리용 LED 정목 얼굴 케어에 쓰이는 LED 레드파장 630nm 사용으로 발 피부 관리  
지압돌기 + 공기압 1,000개 지압판과 7개 공기압 주머니로 손으로 주무르는 듯이 마사지  
40도 온열 관리 체온보다 약 3~4℃ 높은 40℃의 온도로 근육 이완과 피로 회복 극대화  
위생적 내피 분리 방식 탈부착과 손쉽게 선택 가능한 내피로 오염 및 세균 번식 걱정없음

● 제품명 테라핏 플라즈마 발 관리기 ● 모델명 HSM-001 ● 안전인증번호 SU10902-18001B ● 전압 AC100-240V, 50/60Hz, 0.25A, DC 5V, 2.1A ● 소비전력 10.5W ● 배터리 3.7Vdc, 2600mAh ● 작동시간 15분

100세트 한정판매 428,000원 → 328,000원 (109,333원 X 3 카드 3개월 무이자) | 온라인주문 아랍비스토어 | 주문전화 080-470-8888

# 진실공방 치닫는 추미애 아들 軍 특혜 의혹 “정당성 위해 스스로 수사 촉구를”

### 특별수사팀 꾸릴 수 있지만 秋 장관 동의 필요 의혹 계속되면 현 정권에 부담... 결단 내려야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연일 폭로를 이어가며 각종 의혹에 대한 독립 수사팀 구성과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선 추 장관 스스로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다'고 밝히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통역병 선발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실 인사가 국방부장관실 관계자에게 '청탁 전화를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아들 둘러싼 논란 세 가지... 딸 비자 청탁 의혹까지= 현재 논란 중인 서 씨에 대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복무하던 서 씨가 육군 규정을 위반한 채 휴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이다. 또 자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으며, 2018년엔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해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다. 최근엔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서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카투사인 만큼 육군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자대 배치 청탁은 시스템상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통역병 선발 등에 대해서도 외압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서 씨의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해 '일과시간에는 미군 관리 규정을, 휴가·병가 등은 육군 규정을 적용

◇특임검사 현실적으로 어려워... 특별수사팀 관심= 야권에서는 특임검사나 특별수사팀 등 독립된 수사기구를 통한 진실 규명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임검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검찰청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운영하게 돼 있다. 특임검사가 도입되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 의혹을 받는 동부지검을 수사할 수 있지만 김관정 지검장 등이 최근 인사로 이동한 만큼 명분이 적다.

수사의 독립성을 고려한다면 특별검사에 맡기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특별검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180석 규모의 여당이 안건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마지막 대안으로 특별수사팀이 주목받

는다. 특임검사나 특별검사가 아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처럼 검찰총장에게 결과만 보고하는 식의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것이다.

다만 추 장관 취임 이후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별수사팀 구성은 모두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이 변경된 만큼 추 장관 동의가 필요하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라며 "독립적 수사권이 있는 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스스로 수사 촉구해야= 현 재로선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 없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특임검사 등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 반응은 다르다. 현 상황에서 추 장관이 정당성을 지키려면 스스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현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앞서 추 장관은 증거도 없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긴 상황에서 혐의점이 많은 본인 가족 관련 의혹을 그냥 넘긴다면 누구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기영 기자 pyg@ 정수천 기자 int1000@



“유실 지뢰 찾아라” 최근 제9·10호 태풍이 잇따라 동해안을 훑고 지나가면서 지뢰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육군 23사단이 9일 강원 강릉시 남향진 일대에서 탐지 작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도 복지비 줘야”

### 법원 “근로 시간만큼 지급”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 전담사에게 근로 시간만큼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서울특별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차별시정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 197명은 2018년 1월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애초 지노위는 근속수당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했지만 맞춤형 복지비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했다. 이후 중노위는 맞춤형 복지비에 대한 지노위의 판단을 뒤집고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서울시가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에서는 맞춤형 복지비의 액수가 아닌 복지비 미지

급이 차별적인 처우가 맞는지, 이런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복지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인정했다. 또 시간제와 전일제의 일부 업무 형태가 다르더라도 이는 복지비 미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동일한 수준의 복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받는 맞춤형 복지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만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주당 근로시간은 20시간이고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40시간을 근무해 45만 원(전일제)의 절반인 22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근로 조건을 근로 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적용한 결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 한강 못 가니 '파티룸'으로

▶1면서 계속

생일파티를 계획했던 20대 직장인 B 씨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파티룸을 알아봤는데 이미 예약이 마감된 곳이 많아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숙박업소 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예약 건수나 문의가 30% 이

상 많다”고 밝혔다.

파티룸은 밀폐된 공간에 10명 이상이 모이는 만큼 코로나19 예방에 취약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는 ‘모여서 말하지 말고, 먹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라며 “특정 장소가 영업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문해 시간을 보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역 풍선효과’를 인

지했지만 영업 제한 등 고강도 행정명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숙박업 본질이 벗어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단속을 통해 모임 유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통제관은 “숙박업소에서 주류 판매나 게임 제공이 이뤄지는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대한숙박업중앙회와 함께 방역 수칙이 준수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

오쿠노 쇼 지음

##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낼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초의 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잠실 롯데월드,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123층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에는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 녹아 있다. 신격호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일본인 건축가 오쿠노 쇼를 통해 본 인간 신격호 이야기.

‘신격호 회장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나신 사연은?’ 무모하리만치 과감했던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낸 롯데월드의 도전, 저자 오쿠노 쇼의 건축사무소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계획안들을 통해 밝혀진 그의 꿈.

신격호 회장의 구상을 담은 도면과 이미지 400여 장 마침내 공개!

양장본 | 윌커러 | 국배판 변형 | 값 35,000원

Tel. 031-955-4601 **나남**  
www.nanam.net nanam

# “5년간의 재판… 국가가 날 화가로 키웠다”

## ‘대작 사건’ 소회 밝힌 조영남

조영남은 시종일관 자신감이 넘쳤다. 방송에서 그려지던 ‘악동’의 모습도 그대로였다. “국가가 5년 동안 나를 화가로 키웠다”는 그의 말은 ‘그림 대작(大作) 사건’이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한 점을 인정하는 듯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5년을 ‘유배 생활’이라고 표현한 그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이라 예고했다.

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카프로젝트에서 ‘아트, 하트, 화투 그리고 조영남’ 전을 연 조영남을 만나 지난 사건에 대한 소회를 들었다.

“재판이 끝나고 나니 ‘아, 이게 내 팔자다’ 싶었죠. 내가 나이 들고 소리도 안 나니까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라고 국가가 5년 동안 화가로 키웠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내 선전을 해줬죠. 그 일이 아니면 지금처럼 제가 호화롭게 전시를 했겠어요? 안 고마울 수가 없죠.”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린 21점을 팔아 1억 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해 대작을 모르게 했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018년 8월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보조자인 대작 화가를 사용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논란이 된 작품은 ‘극동에서 온 꽃’(1998)과 ‘대한 시인 이상을 위한 지상 최대의 장례식’(2008)이다. 조영남은 직접 두 작품의 어느 부분이 대작 의혹을 받았고 어느 부분에서 결백하다고 주장했는지 해명했다.

“화투 그림이 손이 많아요. ‘극동에서 온 꽃’은 그림 실력이 뛰어난 그 친구한테 아트 형식을 알려주고 그려달라고 했어요. 향아리라고 꽃을 상징해서 아이디어도 줬고 제가 만든 오리지널 작품이 있는



가수 조영남이 8일 서울 청담동 피카프로젝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를 밝혔다.

### 무죄 판결까지 ‘유배 생활’… 그동안 그림에 더 집중 보조 작가에게 아이디어 주고 파이널 터치는 직접 논란됐던 화투 작품 등 50여 점 모아 전시회 열었죠

데 그걸 카피하라고 했죠. 데미안 허스트, 앤디 워홀 같은 작가들은 파이널 터치도 하지 않는데 나는 최소한 파이널 터치를 했으니 아무 죄가 없다고 한 거죠.”

조영남은 5년여 동안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이유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돼 승복하면 평생 사기꾼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았다고 했다.

“어른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 당한다고 하잖아요. 화투를 너무 오래 가지고 놀았나봐요. 대법원 공청회에서 5분의 최후 진술의 기회 할 때 이 말 하다가 울먹였어요. 내 평생의 수치스러운 순간이에요.”

조영남은 지난 5년 유배 생활 하는 동안 그림에 더욱 집중했고, 책을 두 권이나 썼다고 했다. 지난 7월 출간한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에 이어 ‘이상과 5인의 아이들’도 출간을 앞두고 있다. 이상이 피카소, 말러, 니체, 아인슈타인과 그룹사운드

를 만들어 공연을 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고등학교 때 미술부장을 했고, 대학 3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아마추어 화가예요. 취미가 그림 그리기인 미술 애호가로서 영감이 떠오르는 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한 가지 포부가 있다면 피카소처럼 살아있을 때 잘 팔고 즐기는 거죠.”

지난 1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1960년대부터 논란이 된 화투 작품까지 조영남의 작품 50여 점을 소개한다. 1973년 인사동 한국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한 조영남은 지금까지 50여 회의 개인전을 했지만, 1960-80년대 작품은 이번에 처음 공개한다. 서울에서 개인전을 여는 것도 5년 만이다.

앞서 충남 아산갤러리에서는 지난달 ‘현대미술가 조영남의 예술세계’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었다. 내년 8월까지 1년간 이어지는데 공모를 통해 선발한 조수



대작 논란 작품 중 하나인 ‘대한 시인 이상을 위한 지상 최대의 장례식’.

가 작업하는 과정을 전시장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대표는 조영남의 전시를 열게 된 이유에 대해 “조영남 선생님 초대를 받고 닥에 갔는데 작품이 2000여 점이 있었다”며 “시대별로 작품 설명해주시는데 감명 깊게 들었고, 전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카프로젝트가 일반적 갤러리와 달리 진보적이고 재밌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뜻이 맞았다”며 “조영남 선생님이 50년간 그린 작품을 직접 선보이고 소개한다면 대중들도 미술 세계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소희 기자 ksh@

## 새로 나온 책



아들아, 주식 투자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렴

권성희 지음/메이트북스 펴냄/1만5000원/동학개미운동 이후 20대의 청년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유입됐다. 돈에 관심을 가지고 부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은 방증이다. 20대부터 돈과 투자에 대해 제대로 배우면 10년, 20년 혹은 그 이후엔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소신을 잃지 않는 진정한 투자자로 성장해 투자를 즐기는 ‘진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책은 뉴욕 특파원을 거치며 오랫동안 기자로 활동한 ‘엄마’가 청년 세대를 위해 쓴 주식투자 입문서다. 성인이 된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주식투자의 기본 태도와 지식, 투자의 요령 등을 조언한다.



솔직한 척 무례했던 너에게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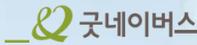
솜숨솜 지음/웅진 지식하우스 펴냄/1만4800원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 상

대방에게 중요한 문제는 간단하게 무시하고 “내가 뭐?”를 시전하는, 세상 편한 사람들. 여기서 불편해지는 건 대개 착하고 소심한 사람들이다.

할 말 때박때박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들을 내심 부러워하면서도 그럴 용기는 없어서, 욕먹기 두려워서, 모질게 맺고 끊지를 못해서 혼자 떠안는다. 그런 그들에게 주변에서는 말한다. “아해해, “천해지면 괜찮은 애야.” 왜 상처를 준 쪽은 늘 어디론가 사라지고, 참고 알아가야 하는 노력은 매번 상처받은 쪽의 몫으로 남는 걸까.

저자는 책을 만드는 편집자로, 온라인에서는 ‘솜숨솜’이라는 ‘부캐’(새로 만든 부캐릭터)로 활동하며 관계에 대한 글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세상  
굿네이버스가  
함께합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굿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 소상공인의 새 희망이 열립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한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잡고  
그분들의 온라인 마켓 진출을 돕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마켓  
**'가치샵시다'**에서  
**'희망으로 같이가게'**  
특별 판매전을 찾아주세요

가치샵시다

## Hope. Together.



\*상기 사이트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치샵시다. 희망으로 같이가게** 신한금융그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모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시범 선정해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온라인 창업 교육부터 홍보까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가이드 영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희망으로 같이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가치샵시다'**와 함께합니다.(v.dongbanmall.com)  
\* 해당 캠페인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hopetogethermarket@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핀테크 신기술 특성 고려 망분리 규제 합리화해야”

국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의견 낸 류영준 핀테크협회장

기존 금융업과 다른 기능·메커니즘에 따라 라이선스 발급  
‘부정결제 피해 자체조사 통해 고객 보상’ 선제 도입도 밝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8일 류영준 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류 협회장은 “핀테크의 발전이 사용자의 편의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피력했다.

류 협회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후불결제와 망분리, 소비자 보호 등 핀테크 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보안 기술 수준이 높아진 환경 변화와 신기술 연구개발이 잦은 핀테크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망분리 규제가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서비

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닌 개발 테스트 단계의 작업 환경에서만이라도 망분리 예외를 허용한다면, 금융보안 우려 없이 핀테크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 등 물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기술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류 협회장은 전금법 개정과 관련, 핀테크업권이 금융권의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특혜를 누릴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개정 전금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핀테크 라이선스는 엄연히 기존 금융업권과 다른 기능과 메커니즘에 따라 구성될 뿐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 일련 유사해 보이는 서비스도 각론에 들어가면 기존 금융업권과 내용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전금법 개정안에 적용될 예정인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 결제(최대 30만 원 한도)는 업



류영준(왼쪽)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8일 윤관석(가운데)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김태호(오른쪽)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업기획실장, 사진제공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 측이 대가 없이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면에서 이자·수수료를 떼는 할부결제·카드론·현금서비스와는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취지에 따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자금융업자에게 전환하는 동시에, 부정 결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체 조사를 통해 고객에게 선보상하는 방안을 핀테크업권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

법 전면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및 관계 당국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는 가운데 핀테크 업계의 입장도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핀테크산업협회장에 당선된 류 협회장은 1977년생으로 카카오 보이스톡 개발팀장, 카카오 페이먼트사업부 본부장, 다음카카오 핀테크 총괄 부사장, 카카오 핀테크 사업 총괄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2017년부터 카카오페이를 이끌고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

정의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에 강은미(사진)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진교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비례대표인 강 원내대표는 “전태일 열사의 절규와 김용균 씨의 죽음을 기억하는 국회,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무지개 정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장혜영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됐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치 상품화 ‘담채원’ 박대곤 대표  
‘9월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다양한 김치를 개발해 판매하는 ‘담채원’의 박대곤(사진) 대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9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선정됐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유기농 김치 생산을 위하여 유기농가와 계약재배를 시작했다. 당시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터라 계약재배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역할을 했다.

지난해에는 충남지역을 비롯해 140개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와 계약을 맺고 1500톤의 배추와 무, 열무, 건고추 등 농산물을 사용했다. 2013년부터 두레생협에 유기농 김치를 납품했고, 2014년부터는 경기 친환경 급식센터를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 충남 등 학교에 유기농 김치를 공급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로를 다각화한 결과 2009년 8억 원이었던 매출이 2019년에는 47억 원까지 높아졌다. 또 2017년에는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홍콩에 김치 수출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미국 시장에도 진입, 올해 상반기 2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외에도 푸드뱅크를 통해 7년 동안 65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기부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도 인정받았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 ‘방탄’ 빌보드 2주 연속 1위, ‘블랙핑크’도 13위로 데뷔

〈싱글 ‘다이너마이트’〉

〈싱글 ‘아이스크림’〉

‘핫100’ 2개팀 동시진입 처음  
포브스 “2주째 왕관 유지는  
BTS 생명력·팬덤 강화 의미”



빌보드 싱글 메인차트 '핫 100'에 1위와 13위로 동시 랭크된 방탄소년단(왼쪽)과 블랙핑크.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 메인차트 ‘핫 100’에서 2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

9일(한국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걸그룹 블랙핑크는 쉐레나 고메즈와 함께 부른 ‘아이스크림’(Ice Cream)으로 핫 100에 13위로 데뷔하며 한국 걸그룹 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핫100 상위권에 한국 그룹 2팀 이상이 동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국 내에서 스트리밍 1750만 회, 다운로드 18만 2000건을 기록하며 2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6일까지 주간 집계 기준으로

1600만 라디오 방송 포인트를 획득했다.

빌보드는 “역대 핫 100 차트에 신규 진입하며 곧바로 1위에 오른 43곡 중 2주 연속 정상을 수성한 곡은 ‘다이너마이트’가 20번째”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흥행에 대해 외신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포브스지는 이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고

수한 것은 팬층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오랫동안 지속할 것임을 증명한다”며 “지난주 빌보드 싱글 첫 1위를 기록하며 슈퍼스타의 마지막 경계를 넘었고, (2주째) 왕관을 유지하면서 생명력과 팬덤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팝 시장에서 거둔 성적은 고무적이었다고 밝혔다.

블랙핑크 역시 지난해 ‘킬 디스 러브’

(41위)와 올해 ‘하우 유 라이크 댓’·‘사워 캔디’(33위) 등으로 주목받은 데 이어 ‘아이스크림’이 자체 최고 순위인 13위에 오르며 K팝의 위상을 높였다. 아이스크림은 밝고 상큼한 사운드와 독특한 곡 구성이 돋보이는 댄스 팝 장르 곡이다. 피처링에 참여한 고메즈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멤버 전원이 영어로 가사 대부분을 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유정선 기자 dwt84@

## 규제샌드박스 홍보대사 박용만, 이번엔 “AI 드론”

김용덕 무지개연구소 대표 개발 사례 소개 “도심 안전 지킴이”

박용만(얼굴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혁신 기술의 발굴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홍보대사를 자처했다.

9일 박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혁신은 계속된다”며 “또 하나의 신기술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고 말하며 ‘인공지능(AI) 드론이 지키는 도심 안전’을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사진〉 이는 대한상의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네 번째 홍보물이다.

이 영상에서 박 회장은 직접 레아션을 맡아 김용덕 무지개연구소 대표가 개발한 AI 드론의 사례를 소개했다. ‘아리온 브레인’이라는 AI 기능이 장착된 이 드론은 스스로 도심의 노면, 건물의 균열 등을 스캔하고 전송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비행 허가 장벽에 가로막혀



날 수 없었다. 대한상의는 이 드론을 ‘산업융합 샌드박스’ 사례로 정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와 3개월간의 논의 끝에 부산·대구에 시험 비행 승인을 받아냈다.

박 회장은 영상에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교각과 고층빌딩을 드론이 점검한다”며 “AI 드론으로 안전한 도시를 향한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의 안전은 예측 가능한 미래이며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며 “샌드박스를 통해 더 많은 혁신이 이뤄질지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홍보영상 내레이션에 직접 참여한 것을 두고 “내 목소리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젊은이의 미래를



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느냐”며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젊은이 중에 언젠가 세계적인 기업인이 나오겠지 생각하면 모든 일이 즐겁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이승아·이정은 수석연구원  
‘바커 혁신 어워드’ 최고상



글로벌 화학·바이오 테크 기업 바커는 ‘알렉산더 바커 혁신 어워드’에서 바커케미칼코리아의 이승아(왼쪽 사진) 수석연구원과 이정은(오른쪽) 수석연구원이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두 수석연구원은 고기능 유틸리티 자외선(UV) 경화 실리온 ‘루미실(LUMISIL)’을 개발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같은 장치 디스플레이에 표면 보호용 유리를 접착할 때 쓰는 고무명, 고신뢰성 실리온 접착물질이다.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나다고 바커 측은 설명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양식산업과장 허만욱

◆한국전력기술 ◇부사장 인사 △미래전략연구소장 임학기 △디지털융합실장 장현영

◆일요경제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정우

부음

▲박천식 씨 별세, 박성길(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진흥실장) 씨 부친상 = 9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 서울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실, 발인 11일, 055-835-9944

▲서호철 씨 별세, 서진수·영수·현수·동수(신한생명 재무본부장) 씨 부친상 = 9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032-327-4003

자본시장 속으로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

글로벌 해상풍력은 기술 발전, 원가 하락, 주요국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구의 70% 이상이 바다로 덮여 있고, 풍속이 육지보다 연안에서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상풍력의 펀더멘털(내재가치)은 유망하다.

주식 시장에서 한국판 뉴딜 바람이 거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성장 산업과 전통 산업 간 밸류에이션(가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고, 풍부한 유동성은 성장 산업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성장 산업 분야를 재정의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주식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린뉴딜 정책 중 풍력발전, 그중에서 해상풍력의 성장성이 유망하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전기차가 화석 연료로 만들어진 전기로 달린다는 것은 난센스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해상풍력은 기술 발전, 원가 하락, 주요국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구의 70% 이상이 바다로 덮여 있고, 풍속이 육지보다 연안에서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상풍력의 펀더멘털(내재가치)은 유망하다. 해

‘한국판 뉴딜’ 바람 이끝 해상풍력

상풍력의 원가는 규모의 경제 확보, 터빈의 대형화를 통해 지난 10년간 50% 이상 하락했다. 해상풍력의 선두 주자인 영국에서는 해상풍력이 이미 새로운 전력을 위한 가장 저렴한 옵션이 됐다. 가스나 원자력보다도 저렴한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 해상풍력의 누적 설치 용량은 29GW(기가와트)다. 국가별 점유율은 영국 33%, 독일 26%, 중국 24%로 3사가 압도적이고, 75%가 유럽에 집중돼 있다. 향후 신규 해상풍력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23% 성장해 2025년에는 20GW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32GW에 도달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205GW의 신규 수요가 더해질 것이다. 풍력 시장에서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0%에서 2025년에는 20%를 상회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주축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시장이 고성장세를 보일 것이고, 미국은 2024년부터 주요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심이 깊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이 기회의 영역이 될 것이다.

이웃 나라인 대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토 면적이 제한돼 있고,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 보니 전력 생산을 위해 해안을 개척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탈원전 및 신재생 확충 에너지 정책 기조 아래 현재 기능 중인 원전을 2025년까지 폐로할 예정이다. 그 대신 2025년까지 해상풍력 5.5GW를 설치하기 위한 발주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기반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설치하겠다는 목표가 유효하다. 우리나라는 대량의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한편, 육상풍력 설치를 위한 입지가 부족한 대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더욱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IT, 자동차,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으면서 조선, 기계, 철강 등의 산업 경쟁력을 통해 해양 엔지니어링 및 공급망 역량이 풍부하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기폭제가 되지 못했다. 복잡한 행정 절차 및 긴 허가 기간, 낮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정책적 결림들이 많다. 2020년 6월 기

준 운전 중인 발전용량은 132MW에 그치고 있다.

이번 그린뉴딜 정책 중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13개 권역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전남 영광에 실증단지를 구축하겠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평균 1.2GW 해상풍력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 23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준비돼 있고, 총 3.7GW에 이를 것이다.

해상풍력 등 풍력발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거라면 전략적으로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다.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기회는 속도에서 나온다. 조만간 새로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원자력이나 가스화력 발전소보다 건설과 운영 비용이 저렴해질 것이다. 설비 투자,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유발 효과도 클 것이다. 터빈, 기자재, 전선, 운영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 기업들에 기회가 될 것이다. 풍력 선진국인 덴마크의 풍력 클러스터에는 5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덴마크 GDP의 4%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EO 칼럼

유희숙  
1492피앤씨애드 대표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장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실패박람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보통 박람회라고 하면 온갖 물품을 모아 놓고 판매, 선전하는 것을 상징하나 정성적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박람회, 그것도 ‘실패’라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요인을 모아 이루어진 ‘실패박람회’는 3년 전 첫 출발부터 우리 사회에 다른 관점의 메시지를 던진 것만은 분명하다.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사례와 고민을 공유하겠다는 것 자체가, 성공만이 최고 가치였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고 보니, 앞으로 이 재난이 가져온 실패로 힘들어할 수많은 사람들의 좌절과 고통을 이 ‘실패박람회’가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올해 시도된 ‘실패박람회’ 특징 중 하나로,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고민을

실패라는 이름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

함께 나누고 상담을 요청하는 ‘다시클라나’이라는 코너가 홈페이지에 있다. 꾸준히 올라오는 상담 요청 글들은, 사소한 고민에서부터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있는 번민까지 아주 다양하다. 실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공통된 고민 중의 하나는 실패할 것 같은 위기 대처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판단을 도와달라는 거였다.

최근 구인구직 플랫폼인 사람인에서 4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재확산 시 경영 전망을 알아본 결과 10곳 중 8곳이 경영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폐업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에서 급히 편성받은 3차 추경 예산 90억 원의 집행률은 8월 말 기준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큰 위기 상황에서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장을 꾸리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정작 폐업을 하는 건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책이 조금 더 세밀했다면 폐업 예산을 실질적 사업 운영자금으로 더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예산 전용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는 없을까. 소상공인 영역밖에 모르는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치킨집을 하다가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다시 빵집을 하라고 폐업 컨설팅하는 우는 더 이상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절대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사고의 확장과 생존 방법론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위기와 폐업 사이 버틸 수 있는 생계 지원을 다각도로, 직접적으로 해야 한다. 정해져 있는 게 정답이라고 우기지 말고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쥐어 짜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창업공제사업기금 설치에 대한 법안은 고무적이다. 창업공제사업기금이란 초기 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안정 및 재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장인은 실업급여도 있고 퇴직금도 있어,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최소 몇 개월간은 생존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고, 다음 재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가, 소상공인들은 창업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이 전혀 없었다. 박 의원이 이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당시 중소기업청에 제안해 2017년 발의했다가 통과되지 못하자 이번에 다시 발의했는데 이번만큼은 꼭 통과되어 위기에 처한 수많은 기업가들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되자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긴급 대출을 시작한 것은 실패와 상관없이 생존의 절실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 전대미문의 세계적 위기 속에서 정답 없는 실패의 기록을 매년 갈아치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문득 새로운 성공의 패러다임 경영(승패가 엇갈리던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을 윈윈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기업 경영관)을 이루어내고 있을지 모르겠다. 정답이 없는 시대, 실패라는 이름의 거울을 매일 보는 것이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심전(心田) 안중식(安中植) 명언  
“서예란 문제로 묘사하는 용한 기술이며, 그림이란 정신을 전달하는 살아있는 방법이다.”

조선 말 화가. 호는 심전(心田)으로 만년에는 불불옹(不不翁)이라고도 하였다. 그가 주도한 ‘서화연구회’ 출범에 기여한 말. 산수, 인물, 화조에 능하며, 특히 산수화에 뛰어나고 행서에 능통했다. 대표작은 ‘도원문진(桃源門津)’, ‘백악춘호(白岳春濤)’. 오늘은 그가 세상을 떠난 날. 1861-1919.

☆ 고사성어 / 선담후농(先淡後農)  
얇은 먹으로 대략 그린 다음 그 위에 짙은 먹으로 그림을 분해해 가면서 화면을 짙어가며 대담한 필치로 그리는 수법이다. 명(明)나라 당지계(唐志契)가 ‘회사미언(繪事微言)’의 ‘적묵(積墨)’ 조에서 먹 쓰는 법을 설명한 데서 유래했다. “화가는 먹물을 진하게도 묽게도 쓴다. 어떤 경우는 처음엔 묽게 쓰고 뒤로 가면서 진하게 한다 [先淡後農]. 어떤 때는 먼저 진하게 쓰고 나서 나중에 묽게 쓴다[先濃後淡].”

☆ 시사상식 / 목록통관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가장 간소화된 통관절차. 운송업자가 송하인·수하인 성명, 주소, 국가, 품명 등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 신고가 생략된다. 이렇게 통관을 신고한 수입 물품 가운데 불법·위해 화물로 적발된 건수는 2015년 2만 8766건에서 2019년 5만 786건으로 2배 가까이(76.6%) 늘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잔진(漣漣)하다  
바람, 물결이 가라앉아 잠잠하다는 뜻. 漣(졸졸 흐를 잔)의 접어.

☆ 유머 / 탈모 고민  
대학생 A는 여자친구도 있고, 꿈도 있고 능력도 있다. 다만 한창 나이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A는 고민 끝에 힘든 아르바이트를 해 비싸게 머리카락을 심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집에 들어온 A에게 엄마가 한 말. “애야, 영장 나왔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안경무 유통바이오부/noglasses@



위기의 롯데쇼핑,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 대표의 설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노조 집행부가 사측과 복지 축소에 합의했다는 소문에 그간 회사 측은 “정해진 바 없다”며 일축해 왔으나 결국 회사 입장이 며칠 새 바뀐 사실을 인정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본질적 원인은 소통 부재와

진정성 결여로 보인다. 롯데쇼핑이 코로나19 이후 초유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롯데쇼핑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따라서 회사 상황이 어려운 만큼 복지 축소는 아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회사는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복지 개편의 대상인 직

원들을 배제하는 우를 범했다. ‘회사에 뒤통수 맞았다’는 배신감이 사원 분노의 시발점이다.

최근 기자가 취재한 이 회사 복지제도 개편 관련 기사에는 ‘추가 취재’를 원하는 독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 회사에 실망한 직원들이 외부에 문제 해결을 기대는 모양새는 재계 순위 5위인 롯데그룹 대표 계열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

위기일수록 정면 돌파가 답이다.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직원들에게 상세히, 정직하게 밝혀야 한다. 롯데쇼핑은 현재 내부 인사시스템을 통해 임금 동결과 복지 개편에 대해 직원 동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 역시 인사상 불이익의 우려 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임금 동결과 복지 축소 등을 두고 롯데쇼핑이 한바탕 내부 분란을 겪고 있다. 사측이 노조 집행부와 근속 직원에 대한 포상을 축소하는 내용에 ‘깜깜이’로 합의한 후 전체 임직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선(先)조치, 후(後)보고’식 의사 결정이 이뤄진 탓이다. 이 과정에서 노사 대립은 노노(勞勞)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근속 포상 대상자인 고연차 직원과 대상자가 아닌 저연차 직원의 온도 차가 뚜렷하다.

분란이 계속되자 황범석 롯데쇼핑 백화점 부문 대표는 직원의 이해를 구하며 진화에 나섰다. 황대표는 “금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창립 근속 포상은 상품권으로 변경해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재원을 ‘복지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

# ‘레밍 신드롬’ 걱정이 기우였으면

주식시장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마구 내달리고 있다. 미국 기술주가 폭발하면서 잠시 제동이 걸렸지만, 시장은 여전히 과속운행 중이다. 코로나19 약재가 터진 3월 이후 코스피는 60% 넘게 올랐다.

그런데도 정부는 양다리만 걸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주식·주택 매매에 활용된 신용대출은 향후 시장 불안 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용·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구두 경고를 한 상태다.

다른 한편에선 빚투를 부추긴다. 신용융자가 크게 늘자 증권사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에 참가한 5개 증권사 사장에게 신용융자 금리를 인하하라는 뜻을 내비쳤다. 증권사들은 ‘올해 겨자 먹기식’으로 금리를 낮췄다. 개미들의 아우성에 공매도 금지 기간도 6개월 더 늘렸다.

개미들은 막무가내다. 주가 폭등에 고무된 투자자들은 곳곳에서 위기경보가 울려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의 행태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일반 청약에는 증거금만 58조 5543억 원이 모였다. 이루다의 청약 경쟁률은 3040대 1을 기록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 개미 덕에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 상품에 접속 지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청약 물량을 받을 수 있다면 최소 ‘중박’은 낼 수 있다. 성공 확률도 78.37%(37곳 중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오른 곳 29개사)에 달한다. 하지만 공모

## 데스크칼럼

김 문 호  
자본시장부장



보다 낮은 곳도 8개사나 된다.

6월에는 전례 없는 ‘우선주 광풍’이 불었다. 6월 1일 5만4500원 하던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같은 달 19일 96만 원까지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도박개미’들이 상당수 뛰어든 것으로 본다.

사모펀드는 어떤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보면 펀드 투자자 1163명 중 979명이 개인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부실이나 증권·운용사의 잘못에 면죄부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투자자는 고액자산가이자 전문가들이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처리하는 감독당국의 결정에는 일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상당수 전문가는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만난 어느 전문가는 “현재의 주식시장은 신의 영역도 벗어났다”고 말했다. 지금의 주가 폭등을 유동성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황급히 전망치와 분석을 발표하지만, 이게 맞나 싶다”며 “전문가 체면에 썩스럽다”고 했다.

시장분석가들은 최근 주가 폭등이 세계

적인 현상이며, 유동성이 풍부하므로 당분간 상승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나름대로 근거 있는 논리다. 하지만 돈 파티 뒤에 남은 생채기는 늘 컸다.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다. 특히 최근 시장은 코로나19 정국에 기초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유동성 잔치 때문이다.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닥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지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끌’로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있다면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얘기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그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학개미, 로빈후더, 핫팁(즉집게 조인) 따라가면 망한다. 자기들이 팔하는지도 모른 채 투자하는 행위들은 늘 안 좋게 끝이 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고 지적했다. 로빈후더는 2013년 미국에서 등장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용자들의 평균 나이는 31세에 불과하지만, 현재 미국 증시의 활황을 이끌고 있다.

‘아차!’라는 생각이 들면 때는 늦다. 발을 빼려 해도 뺄 수가 없다. ‘빚투라도 해서 한뭇 잡아보자’고 시작한 주식투자가 ‘원금이라도 건져야지’라는 처절한 싸움으로 바뀐다. 초조할수록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다. 통장은 점차 강퍅으로 바뀐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레밍(lemming)’이라는 이름을 가진 들쥐들이 산다. 개체 수가 늘어나면 2~3년마다 집단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선두를 따라 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절벽을 만나면 그대로 뛰어내려 줄줄이 바다나 호수에 빠져 죽기도 한다. 폭주 기관차에 올라타려는 ‘뭇지마 투자’의 행렬을 보면 레밍스 증후군이 떠오른다. 지나친 걱정일까. kmh@

## 사설

### 경제활동 포기 사상 최대, 일자리 희망 안보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폭우 피해로 8월 취업자가 또 큰 폭 감소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7만4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 11년 만의 최장기간 마이너스 추세다. 올해 취업자 감소폭은 당시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코로나19 충격이 큰 도소매업(-17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6만9000명)이 계속 쪼그라들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도 많이 줄었다. 주요 수출국의 경제마비에 따른 시장위축으로 제조업 감소폭도 -5만 명에 이르렀다. 반면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가 큰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5만5000명) 등이 주로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배 및 배달 수요가 급증한 운수·창고업(5만6000명)도 큰 폭 플러스였다.

연령별로는 세급일자리가 많은 60세 이상(38만4000명)에서만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경제활동의 주력인 20대(-13만9000명), 30대(-23만 명), 40대(-18만2000명), 50대(-7만4000명)의 모든 연령층에서 급격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인 일시휴직자도 14만3000명(20.3%)이

나 늘어난 84만6000명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비경제활동인구가 53만4000명 증가한 1686만4000명으로 현행 통계기준이 적용된 1999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나마 쉬는 인구가 29만 명 늘어난 246만2000명으로 2003년 이후 가장 많다. 구직단념자도 13만9000명 증가한 68만2000명으로 2014년 이후 최대다. 일자리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장기 실업자들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주저앉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사정은 더 최악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8월 고용동향 수치에는 조사 시점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차 충격이 반영되지 않았다. 9월 고용지표가 더 악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이 점 가장 걱정하고 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 세급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당장 급한 일이라 해도, 지속성이 없고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수백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 주도 계획도 마찬가지다. 현실성이 부족하고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 획기적 대책이 절실한데, 정부·여당은 기업 규제만 자꾸 늘리는 암울한 현실이다. 일자리의 희망 또한 없다.

## 설경진의 루머속살

자본시장부 차장



천문학적 돈이 오가는 자본시장에서는 전 세계에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정보 속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다. 함의적이어야 하고 근거가 있어야 움직일 것 같은 이 시장도 간혹 아니 자주 ‘말 한마디’에 요동친다.

1994년 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에 뛰어들어 이후 최대 호황을 맞은 시기가. 주가도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반도체 공급과잉이라는 메릴린치의 리포트로 삼성전자 주가는 8만 원대로 급락하는 조정을 경험했다. 2013년 삼성전자는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의 잇단 하향 평가로 주가가 10% 이상 급락했다. 올해 8월 6일 미국계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변경했다. 그 충격에 이달 하이닉스의 주가는 5% 가까이 빠졌다. 같은 달 13일 골드만삭스가 셀트리

## ‘말 한마디’의 중요성

온의 적정주가를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후려치는 보고서를 내자 셀트리온 주가는 4% 이상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둘 터져 나온 ‘말 한마디’들은 촉매제 역할을 했다. 최근 홍콩계 증권사인 CLSA가 ‘문재인 대통령의 펀드 매니저 데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금을 동원한 손실 보전, 투자자의 모럴해저드, 금융시장 버블 우려 등을 지적했다. 뉴딜펀드를 시작도 전에 문제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펀드’나 박근혜정부의 ‘통일펀드’처럼 세금 먹는 관제펀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감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사업 구상과 뉴딜 금융지원 방안은 5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등 뉴딜펀드를 만들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가 각각 100조 원, 7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대신 생산적인 투자 부문으

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선도 투자에 이어 민간 투자를 유치해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 생태계를 구축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뿌려진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활용해 위기 극복 및 경기 회복을 꾀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 표를 얻겠다는 발상보다, 신산업 발목을 잡는 규제를 통해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한다면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보고서로 인해 논란이 커질 필요 없다.

논어에 ‘시불금설(讒不及舌)’이라는 말이 나온다. 직역하면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빠른 수레도 사람의 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소문은 빨리 퍼지므로 말 조심하라는 의미이다. 적어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에서는 더 그렇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skj78@

## 한 킷



### 코로나 플라스틱

코로나19 장기화에 포장과 배달 수요가 늘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폐기물의 하루 평균 발생량은 약 850톤으로 지난해 상반기 732톤 대비 약 16% 증가했다. 플라스틱이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0년 이상.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은 결국 우리 생활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뿐이다. 9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장에 플라스틱이 가득하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인생금융  
전문가 삼성생명FC

Q

주부 10년 차

제가 컨설턴트가 된다면  
뭘 해줄 수 있나요?



A

삼성생명이 2년간  
지원해드릴게요!

### 삼성생명 FC, 지금 시작해보세요

FC (Financial Consultant)는  
고객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컨설턴트입니다

#### 정착 지원금을 받으세요

컨설턴트를 처음 하셔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2년간 지원금 제공\*  
\*회사기준 달성시 지급

####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최대 13개월간 동행 매니저와 함께하는 코칭 프로그램

####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4개월 차 고객 관리 교육 - 7개월 차 상담 스킬 교육 - 13개월 차 시장 확대 교육

####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보험부터 카드, 펀드까지 종합적인 금융 컨설팅 교육 제공



지원 상담 1588-3114

준법감시필 2020-1265호

삼성생명

